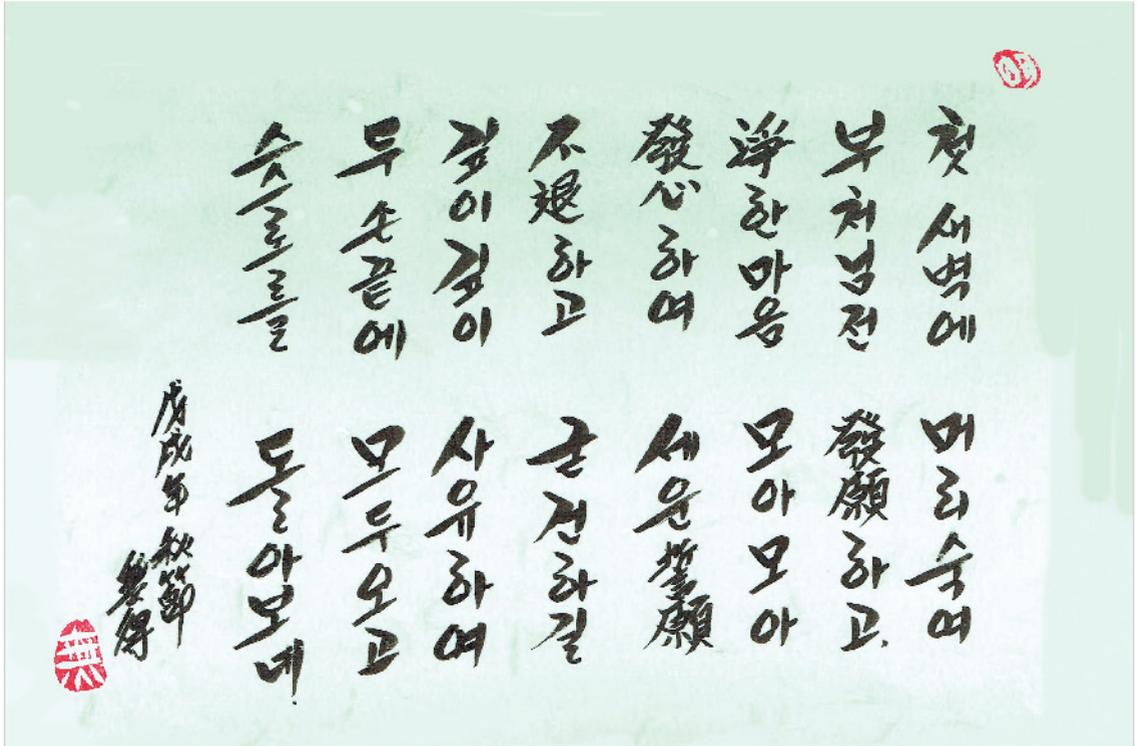


# 雲門

불기 2562년  
가을호  
통권 제 146호  
雲門寺僧伽大學





## 구름문을 펼치다

- ☘ 이 가을엔 4년간 강원생활을 정리합니다. 겨울 지나 봄이 오듯이 내일은 더 나은 오늘이 되시길 / 대교과 민재
- ☘ 창정수월도량에서 부처님의 위없는 가르침을 聞思修 할 수 있음에 진실된 마음과 간절함으로 감사드립니다. / 대교과 원민
- ☘ 아름다운 가을, 오백나한님과 함께 기도정진하는 수행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 사교과 지선
- ☘ 가을철도 금강경과 함께. / 사교과 도현下
- ☘ 가을하늘처럼 내 마음도 더욱더 밝아지겠지요. / 사집과 현근
- ☘ 나락도 춤추고 농사꾼도 어깨가 들썩들썩! 모두가 "얼썩~" 하는 풍성한 가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 사집과 설민
- ☘ 2018 학인염불대회 최우수상! 결과보다는 과정에 진실했던 우리 사집반 스님들, 감사합니다. "호거산 사리불" 영원하리~ / 사집과 정현
- ☘ 부처님, 수백 년 운문사를 지켜온 은행나무와 소나무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행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부지런히 공부하고 도반들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심하는 수행자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 사미니과 혜주
- ☘ 알일이 어문 곡식처럼 여물어지는 수행자 되기를. / 사미니과 윤담

# 雲門

##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발심출가發心出家 명성
06	삼장원	65+ 아름다운 회향을 향하여 일진
08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마음의 고삐를 잡아라 성현
10	교수논단	계戒 톺아 보기 ㉠ 지성
16	학인논단	염불의 대중화와 포교에 관한 고찰 ㉡ 범성
20	운문, 운문인 1	염불대회를 다녀와서
22	선지식 탐방	헛노력이 공부라 -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혜국 큰스님 탐방기 상경
28	운문만행	대도시 속에서 참선한다 - 선수행공동체, 홍공 수봉선원 범여
32	외부기고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오도悟道 시스템과 오늘 윤창화
37	想	내 안의 붓다 범견
38	기획기고	우리의 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편집부
42	운문, 운문인 2	추승구족秋僧九足 편집부
44	수행의 두레박 하나	지금, 여기 그대로 (同時具足相應) 송혜
46	수행의 두레박 둘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지우
48	차례법문	이상我相과 하심下心, 그 멀고도 가까운 거리 진오하
50	이 한권의 책	가을을 맞는 소회所懷 -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읽고 원각
52	운문논평	귀의歸依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중체기용從體起用하고 섭용귀체攝用歸體하는 법

## 발심출가發心出家

명성 / 운문사 회주



제9회 법륜비구니 장학금 수여식

청명하게 하늘이 높아만 가는 가을입니다. 가을에는 봄과 여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꾼 농사의 결실을 맺는 계절이지요. 학인스님들은 이 가을 무엇을 수확하고 있습니까.

‘信心으로써 욕락欲樂을 버리고 일찍 발심發心한 젊은 출가자들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면서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서 가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바리 존자의 계송입니다. 간단한 계송이지만 참으로 많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信心이 무엇인지, 욕락을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수행의 시작은 신심에서부터입니다. 신위도원공덕모信爲道元功德母요 장양일체제선법長養一切諸善法이라. 믿음은 도道の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요, 일체의 모든 선법을 길러내는 것이라 했지요. 그럼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최종 종착점은 바로 내가 부처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중생의 길이 아닌 부처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욕락을 버려야 합니다. 세속에서는 엄청난 의미가 있고 삶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가치들이 수행의 길에서는 버려야 할 것들로 구분지어집니다. 예를 들면 돈과 명예 그리고 멋진 여자친구(또는 남자친구) 같은 것들 말입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 똑똑히 구별할 수 있다면 욕락을 버리고 신심을 내어 발심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이 됩니다. 북망산천의 영웅호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 갈 수 없고, 다음 생애 또다시 윤회를 하게 됩니다. 복을 짓느라 힘이 들고 복을 받느라 번거롭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끝내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것들을 불교에서는 ‘苦’라고 합니다.

반면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결코 부서지지 않는 불생불멸하는 것이 존재합니다. 학인스님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나요?

농업경을 배운 학인들이라면 기억하겠군요. 강물을 바라보는 나는 세월이 지나가면 변화하여 젊고 아름답던 모습이 늙고 쇠약해집니다. 그러나 강물을 바라보는 성품(見性: 보는 성품)은 결코 늙어지지 않습니다. 선가귀감에서는 그것을 ‘일물, 한 물건’이라 했고, 법성계에서는 ‘법성’이라 했으며 또는 ‘불성’이라고도 합니다. 넓은 곳을 본다하여 넓어진 일도 없고, 좁은 곳을 보고 있다하여 결코 좁아진 일도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소영영昭昭靈靈하여 능히 보고 들을 줄 아는 그것은 지금 항상 우리가 만나고 있는 본래부처의 자성自性입니다. 소리가 있을 때에도 들을 줄 아는 성품은 빛나고 있으며, 소리가 사라져도 들을 줄 아는 성품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빛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생각이나 의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나 식識은 소소영영하지 않으며 항상 하지도 않습니다. 생각은 거의 대부분 망념이며 그것은 잠시도 머물지 않고 설 사이 없이 변화하며 고요하지 않습니다.

혹시 요즘 고민이 있다거나 힘겨운 일이 나에게 있다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을 똑똑히 분간하여 걸어가야 할 길만을 고고孤高하게 걸어가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겠습니다. ☸



## 65+ 아름다운 회향을 향하여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장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았던 지난여름,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불볕더위가 한반도를 강타했던 기억이 아직도 뚜렷하다. 그런데 어느덧 지금은 서늘한 가을이다. 11월이다. 인디언들은 11월을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로 부른다고 한다. 포행 중에 길에서 자주 만났던 다람쥐랑 청설모 등 이런저런 친구들의 자취가 뜸해지고 나무에서 잎이 떨어져 내린다. 무성했던 숲이 수그러진다. 그렇지만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한동안 그렇게 자리를 비웠다가 시절인연이 도래하면 다시 왕성해질 것이다. 변화해가는 것이 어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계절뿐일까. 자리를 선뜻 비워주고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이 비단 나뭇잎만은 아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넘겨주고, 내어주고, 변화하는 이치 속에 존재한다. 이것은 우주의 질서이고 불변하는 순환의 법칙이다. 이런 질서 속에서 지구는 영원히 건강하게 살아 숨 쉬고 있다.



‘65+ 아름다운 회향’ 이라고 제목을 써 두고는 서두가 길었다.

내 생애 첫 번째 스무 살 때 삭발염의리는 일대 사건을 경험한 이래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발원하고 기도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까? 벌써 세 번째 스무 살 중간 지점까지 온 지금, 늙음이라는 주제를 정면으로 맞게 되었다.

평소 학인스님들과 강의 중에 조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던 내용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나의 정신 연령은 고3, 열아홉에 멈춰 있음을 말하며 어쩌다 철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말을 하더라도 양해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학인들도 그냥 웃는다. 아마 앞으로도 이런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즘 학인스님들은 고학력에 고령 출가자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LTE급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한 인생의 선배들이다. 이 점을 충분히 인정하고, 그 세월을 그만큼 어렵게 살아내고 발심 출가한 사실에 격려와 찬탄을 보내는 의미이기도 했다.

이쯤에서 나 자신의 일상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스스로도 의식하지 못한 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살아왔다.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에 매여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늙어 간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꼭 주문하고 싶은 사항 하나, 설사 더 많은 세월을 살아야 한다 해도 늘 그 순간만을 살 일이다.

지금은 지나간 과거도, 오지 않은 미래도 아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지금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지금일 뿐이다. 그러나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순수한 시간이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을 살 뿐이다.

요즈음 학인스님들과 함께 보는 『화엄경』 「회향품」에 선근회향善根廻向이라는 말이 끝없이 되풀이 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겨울까지, 태어나면서 그 생을 마칠 때까지 모든 이치는 회향하는 일뿐이다.

가을을 흔히 나눔의 계절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는 다소 차이가 있겠으나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순전히 모든 것을 다 내어준다. 오롯이 회향하는 계절이다.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기의 그릇만큼 자기 분수만큼 선근으로 회향할 일이다. 이 세상에서 사용되는 많은 언어 중 선근회향, 아름다운 회향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있을까?

첫 번째 스무 살 시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던 말이었고, 입으로 열심히 외우고 또 잊어버렸던 단어, 회향이라는 이 말이 오늘 따라 소중하고 귀한 의미로 진하게 내게 왔다. 나의 시간을 아름답게 회향할 일이다.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축복에 대해서도 소중하고 고마운 마음이 점점 크고 절실해진다. 내가 입는 옷과 밥, 몸담고 있는 이 집에 대해서 더 많이 진심으로 감사할 일이다.

하나 더, 녹슬지 않는 꿈을 가질 일이다. 이다음 커서 무엇이 되겠다던 어린 시절의 꿈처럼, 앞으로 스무 살을 더 보낸 후에도 행복한 노스님, 따뜻한 노스님이길 꿈꾼다.

하나하나의 일사귀들이 모여 숲을 이룬 그 속에서 바람을 맞아 가슴을 맞대어 여는 자유를 꿈꾼다. 사소한 것까지 천천히 버리며 아름답게 포기하는 자유를 꿈꾼다.

『장자莊子』에서 “노아이생 일아이로 식아이사 勞我以生 佚我以老 息我以死”라 했던가!

젊은 시절의 삶이 수고로웠다면 늙음은 나를 편안케 하고 죽음은 쉬게 한다고 한 것처럼 늙으면서 편안해지고 쉬어가고 쉬어갈 일이다. ☁

## 마음의 고삐를 잡아라

성현 / 운문사승가대학 부교수

천고마비天高馬肥,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구름 깨끗하니 별뿔뿔 떨어지고 가을 하늘 높으니 변방의 말이 살찌네(雲淨妖星落 秋高塞馬肥).” 변방으로 떠나는 친구 소미도蘇味道에게 중국 당唐나라 때 시인詩人 두심언杜審言이 쓴 시 구절이다.

채경당彩鏡堂 앞 능소화凌霄花를 피워냈던 지난여름의 기억은 가마솔 폭염이었다. 더위를 동반한 능소화 흐드러지게 피는 시절이 나에겐 ‘양날의 검’ 이었다. 더위와 치열하게 대면했고, 더위를 기폭제로 삼아 경전에 심취해 보는 기회도 맛보려 애썼고, 때론 몸서리치는 더위를 피해 도망치려는 도망자로 변신하는 스스로의 모습도 觀해 보았었다.

여름날, 나에겐 양날의 검이었던 더위와 능소화!

눈에서 형상을 대상으로 안문인식과정眼門認識過程이 이루어진다. 그 과정을 통해 비취진 능소화 빛깔은 나의 안식眼識을 자극하여 행복을 느끼게 한다. 이와 동시에 신문인식과정身門認識過程에서는 이전보다 높아진 기온과 습도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발미를 제공하기 충분하다.

모든 선지식들의 가르친 핵심은 탐·진·치의

소멸과 열반에 있다. 탐·진·치를 삼독三毒이라고 하며 삼화三火라고도 일컫는 만큼 인간의 마음 속에 절대적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기에 독과 불에 비유함이 과히 지나치지 않음을 새삼 점검하게 된다.

111년 만에 찾아온, 이처럼 뜨거웠던 한반도의 여름은 ‘폭염’이라는 이름하에 후끈 달아올라 사그라질 기미가 없었다. 우리 생활 속에 삼독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물룩 깨닫기도 하지만 보통의 경우 자세히 지켜보지 않으면, 우리는 쉽사리 삼독의 화살을 맞고도 모르기 일쑤다.

더위(조건)에 의해 일어나는 탐심貪心과 항상 동반하는 사견私見은 탐욕의 기세를 확장시킨다. 사견은 자신의 강한 주장을 이끄는 탐심에 뿌리한 마음부수이다. 또한 사견은 더위를 반드시 없애 줄 수 있는 매체를 찾아 끝없이 헤매게 될 것이다. 올여름 38도를 육박했던 정오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기대했고, 간절히 바랐음에도 얻지 못했다면, 삼시간에 진심瞋心으로 이어진다. 진심 역시 후회·인색·질투 등의 표현과 함께 일어나기도 하는데, 시원한 바람을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획득하지 못했다면, 거기서 오는 실망으로 화내는 표현은 진심 최고치의 방점을 찍은 것이 된다. 연이어 이어지는 어리석은 행동인 타인을 원

망하고, 환경을 비판하며, 때로는 자신을 자책하는 행위들은 바로 악업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다. 이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삼화三火를 태우고도 자신의 몸이 불타버린 줄 모르는 예라 할 수 있겠다.

탐·진·치는 어디서 극렬하게 촉발하는 것인가? 육문(안·의·비·설·신·의) 인식과정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다.

상윳따 니까야 ‘비파 비유경’ (s35:246)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어떤 비구에게든 어떤 비구니에게든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적의가 일어나면 바로 그때 (다음과 같이) 마음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 길은 두렵고 무시무시하며, 가시밭이고 밀림에 덮여 있으며, 잘못된 길이고 나쁜 길이고 결핍된 도정<sup>1)</sup>이다.”

“귀로 인식되는 소리에 대해서…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에 대해서… 혀로 인식되는 맛들에 대해서…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들에 대해서… 마노<sup>2)</sup>로 인식되는 법들에 대해서 마음으로 욕구나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나 적의가 일어나면 바로 그때(이와 같이) 마음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이 길은 두렵고 무시무시하며, 가시밭이고 밀림에 덮여 있으며 잘못된 길이고 나쁜 길이고 결핍된 도정이다.”

“여기서 곡식이 다 익은 밭은 다섯 가닥의 감

각적 욕망과 같고, 곡식을 좋아하는 황소는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과 같고, 밭을 지키는 사람이 방만한 것은 비구가 여섯 가지 감각의 대문에 대해서 마음 챙김을 버려버리고 노니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음이 여섯 가지 감각의 대문을 지키는 마음 챙김을 놓아버리고 다섯 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맛보게 되면 유익함의 편에 있는 특질들이 파괴되어버려 비구는 사문됨의 결실을 증득하지 못한다고 알아야 한다.” (SA.iii.65)

삼독의 소멸을 발원하며 고타의 소멸과 고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셨던 부처님!

그 부처님께서 이루신 정각을 따르고자 출가한 발심 수행자들의 염원이 어느 순간부터 문명의 이기利器로 출가의 취지가 퇴색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에게 반문해 본다.

지금도 나의 육문의 두더지들이 제각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혀끝의 맛을 탐미해 그곳으로 달리는 두더지, 향기로운 냄새에, 듣기 좋은 소리에, 보기 좋은 광경에, 좋은 촉감에 머리를 들이대고 마구 각자의 욕망의 대상으로 향한다.

두더지를 잡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구멍을 막은 후, 두더지를 잡을 한 개의 구멍만을 남겨두고, 두더지 굴에 연기를 피워 두더지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마음의 고삐를 조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오늘도 그 두더지를 잡으러 간다.

다시 돌아올 채경당 능소화가 필 무렵을 기다리면서 말이다. ☸

1) 결핍된 도정道程 : 괴롭게 나아간다고 해서 결핍된 도정이다. 이 길에는 뿌리나 열매 등의 맛볼 것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가는 것은 괴롭고 그 길을 따라가서 원하는 곳으로 갈 수가 없음을 의미한다.

2) 마노(意) : 여섯 번째 인식기관인 마노는 오감을 통해 입력된 감각정보와 이미 저장된 다른 인식정보들의 결합을 통해 법이라는 대상을 인식한다. 즉 안팎의 모든 정보들은 마노의 대상인 담매(法)로 처리된다.

## 계戒 툇아 보기\* 2

지성 / 운문사승가대학 교수

### 목 차

- I. 시작하는 말
- II. 戒律이란 무엇인가
- III. 계란 무엇인가
- IV. 계의 전통적인 정의
- V. 끝맺는 말

\* '툇아보기'를 툇아보기'로 정정합니다.

### 2) 『해탈도론』에 보이는 『무애해도』의 계에 대한 정의와 주석

계의 정의	주석
思(Cetanā)	我不作惡作自受 (“나는 악을 짓지 않는다. 만일 지었다면 스스로 그 과보를 받을 것이다”라는 의사意思)
威儀(Sampvara)	離於犯處 (“惡” 혹은 “과실”이라는 행위에서 벗어난다)
不越(Avītikama)	若有戒人身口無過 (만일 계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신체와 언어의 과실이 없다)

이어서 계의 의의를 제시한 문장이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戒란 어떤 의미일까? 그것에는 냉泠의 뜻

· 중상增上의 뜻 · 행行의 뜻 · 자성自性의 뜻 · 고락상응성苦樂相應性의 뜻이 있다. 또한 머리頭의 뜻 · 냉泠의 뜻 · 안안의 뜻이 있다. 어째서 머리를 계의 뜻으로 하는 것일까?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머리가 없다면 일체의 뿌리(根, 감각기관)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죽음이라고 한다. 이처럼 비구는 계로써 머리를 삼는다. 만약 머리가 잘리면 모든 선법善法을 잃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불법佛法에서는 그것을 (비구의) 죽음이라고 한다. 따라서 계를 머리의 뜻으로 하는 것이다. 왜 계를 냉泠(차가움)의 뜻으로 하는 것일까? 훌륭하고 차가운 전단栴檀을 열이 나는 곳에 바르면 몸에 열이 제거되고 기쁨이 생긴다. 이와 같이 계는 훌륭하고 차가운 전단이 되어서 계를 범하는(것에서 발생하는 고평苦果에 대한) 공포가 마음의 열을 없애주고 기쁨을 내게 하므로 냉泠을 계의 뜻으로 한 것이다. 왜 안安으로써 계의 의미로 삼았을까?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계가 있다면 위외가 정숙하고 두려움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안安을 계의 뜻으로 하는 까닭이다.7)

이상과 같이 『해탈도론』에 나타난 계의 의미에 머리頭 · 차가움泠 · 안락安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중인도의 라자그라하(왕사성王舍城, 라지기르) 근교 출신으로 전해지거나 혹은 스리랑카출신이라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미얀마출신이라고 주장하는 학승인 붓다고사(Buddhaghosa)가 남인도로부터 스리랑카로 전해진 여러 전승을 비판하여 정리해서 분별설부 대사파大寺派의 수행법을 체계화한 『청정도론(Visuddhimagga)』이 있다.

『청정도론』은 분별설부 무외산파의 수행서인 『해탈도론』의 구성을 거의 전부 답습하여 해탈도론에 제시된 견해를 부정하고 자신(대사파)의 견해를 서술해서 재편집하고 재구성하여 5세기 중엽에 새롭게 탄생하였다. 『청정도론』은 대사파의 수행법을

상세하고 완벽하게 서술했는데, 이 서적을 부정한다면 현재의 상좌부는 존재할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실제로 이 서적을 대표적으로 하는 붓다교사의 경론에 대한 주석서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으며 상좌부 승려들에 의해 지금도 필독서(국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로서 읽혀지고 있다.

붓다교사는 『청정도론』 가운데 위에서 들었던 『무애해도無礙解道』의 계를 네 종류로 정의한 문장에 대하여 여러 경론을 인용하면서 주석을 달았다. 원문 등은 너무 번잡하므로 간략하게나마 표로 들어 보겠다.

3) 『청정도론』에 나타난 『무애해도』의 계에 대한 정의와 주석

계의 정의	주석
사심(Cetana)	지계지持戒者나 성자聖者 혹은 살생·투도·사음·양설·망어·악구·기어의 신체와 언어에 대한 악업에서 벗어난 자의 의지.
심소心所 (Cetasika)	지계지持戒者, 탐욕·진에·사견邪見인 치癡에서 벗어난 자의 마음작용.
율의律儀 (Samvara)	(바라제목차를 지키는) 계戒·(육근에 대한) 염念·(모든 욕망을 막는)지궤·(추위와 더위에 대한)인욕·(욕애가 일어나도 집착하지 않는)정진의 다섯 종류에 의한 율의, 모두 악을 꺼리고 악을 짓지 않는 율의.
무범無犯 (Avikkama)	지계자에게 신체와 언어에 대한 위반(죄)이 없는 것.

이어서 대덕은 계라는 말의 원뜻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언급한다.

무슨 뜻에 의해 계라고 하는가? 그것은 「(근거가 되는) 장場」이라는 의미로 계戒이다. 무엇

을 “장場”이라고 하는가? “정돈된 것”이다. 신체의 행위 등이 선한 계에 의해 제어된다는 의미를 따르거나 혹은 “용기容器”를 말한다. 모든 선한 법이 확고해져서 보전된다는 뜻에 의해 이들 두 가지 의미단을 어원語源에 통하면 승인한다. 하지만 달리 “머리顛”이라는 의미가 계의 뜻 “청량이라는 의미가 계의 뜻”이라고 한 방법으로도 계의 뜻이 밝혀진다.<sup>8)</sup>

붓다교사는 시라Sila, 이것은 계의 원어인데 어째서 시라Sila가 『무애해도』에 있는 뜻으로 일컬어졌는지 설명할 때, 시라나Silana(의지해서 세우는 장소·근거)라는 용어를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마다나samādhāna(정돈된 것) 혹은 우파다나 upadhāraṇa(용기 지키는 것)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그는 이러한 해석에 의해서 왜 시라Sila(戒)라고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정의를 내렸던 것이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붓다교사는 이러한 어원적인 해석 이외의 설로 계戒를 “머리顛·청량”의 의미로 하는 설이 있음을 들었다. 이는 앞서 들었던 『해탈도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부파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해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 인도에서는 행해졌을 것이다. 이처럼 붓다교사는 그 어원의 해석에서 장場과 용기容器를 시라Sila의 의미로 하였다.

4) 설일체유부(살바다부薩婆多部)  
설일체유부는 간략히 유부有部 혹은 살바다부

7) 『해탈도론』 분별계품 제2(T32, P401a)

8) 붓다교사 『청정도론』 7,  
<http://www.tipitaka.de/roman/anya/visuddhimagga/visuddhimagga-mahatika-1/1.%20silaniddesavannana.html>

라고 음사하여 호칭하는데 계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내렸다. 이는 유부의 논정論藏인 『발지론發智論』의 주석서인 『아비달마대비바사론阿毘達磨大毘婆娑論』(『바사론婆娑論』이라 약칭)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이 서적은 한역불전에 2백 권이나 되는 분량을 차지하며 쿠산왕조인 카니시카왕의 후원으로 행해진 4차결집 때(2세기 중엽 무렵), 협 존자를 상수로 한 5백 명의 아라한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이때부터 대승불교운동이 일어났는데, 산스크리트 원전은 전해지지 않으며 현장삼장에 의한 한역본이 있다.

당시 학승들의 견해를 고스란히 전하고 있어 현제에도 매우 중요하고 귀중한 서적이다. 여기서 계의 정의를 발췌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다만 『바사론』이 계에 대하여 논한 것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다.

계경契經에 계를 설하였다. 또 (계는) 시라尸羅라고도 한다. 혹은 행行이라고도 하며 광활이라고도 한다. 시라尸羅란 청량淸涼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악은 몸과 마음에 고통을 가져다주지만 계는 몸과 마음을 쾌적하게 하므로 청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악행은 또한 지옥·아귀·축생의 괴로운 경지로 들어가는 재생을 초래하지만 계는 인간이나 혹은 신으로 재생하므로 청량이라고 한다. 그리고 시라尸羅는 안면安眠을 의미한다. 지계지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고 항상 꿈을 잘 꾸기 때문에 시라尸羅라고 한다. 그리고 시라는 교습敎習(반복해서 행함)을 의미한다. 항상 선한 가르침을 닦기 때문에 시라尸羅라고 한다. 또 시라尸羅는 득정得定(선禪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지계지는 마음이 가볍고 선정禪定을 쉽게 얻기 때문에 시라라고 한다. 시라는 수동

遂證을 의미한다. 아래 계승에 설한 바와 같다.

불법佛法이라는 못(池)은 청량한 시라를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한다.

성자聖者는 (이 못의 물에) 목욕해도 몸이 젖지 않으며 피안의 공덕을 얻는다. 또한 시라는 장엄구를 의미한다. 이 장식이 젊은이로 하여금 젊은이답게 한다. 이 장식이 장년으로 하여금 훌륭한 장년으로 만든다. 이 장식이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으로 하여금 훌륭한 노인으로 만든다. 시라는 아침·낮·밤에도 항상 몸을 장식한다. (이하의 계승에 설해진 바와 같다.)

시라는 몸을 치장하고 유년·장년·노년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람직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며 지혜를 존중하도록 한다. 그 복덕을 흠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시라는 명경明鏡을 의미한다. 거울이 그안에 분명한 상을 비추는 것과 같다. 정시라淨尸羅를 지니어 흔들림이 없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 무아無我的 상을 비춘다. 그리고 시라는 사다리를 의미한다. 존자의 말이 멸하지 않아도 우리는 시라尸羅라는 사다리를 밟고 위없는 지혜의 궁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시라는 증상增上을 의미한다. (중략) 또 시라는 두수頭首를 의미한다. 머리가 있기에 (사람은) 사물을 보고 냄새를 맡으며 맛과 감촉을 알고 사물의 판단을 할 수 있다.9)

『바사론』에서 계를 최초로 “행行” 혹은 “광주리”라는 뜻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앞의 “계란 무엇인가?”에서 본 것처럼 계의 원어인 시라śīla라는 말의 어원해석에 의한 것이다. 이어서 계리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청량淸涼·안면安眠·교습敎習·득정得定·수동遂證·장엄구莊嚴具·명경明鏡·계제

9) 『아비달마대비바사론』 제44 (T27, P229c~P230c)

階梯·중상增上·두수頭首 등을 열거하여 계를 정의하였다. 붓다교사가 『청정도론』 가운데 언급한 계를 청량 혹은 머리의 의미로 한 설은 설일체유부에서 언급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5세기 당시에는 이것이 세간에 행해진 일반적인 설이었던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기서 들었던 계의 정의나 의의는 어원적 혹은 교설에서 그렇게 해석되었던 것이다. 『바사론』에서 설한 것을 경량부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한 세친의 『아비달마구사론』에서 설일체유부의 계에 대한 정의를 설한 일설이 있다.

송頌하여 이르되,

범계犯戒와 차계遮戒를 떠나는 것을 계戒라고 하는데 각각에 두 종류가 있다.

범계와 인연에 파괴되지 않는 것과 치治와 멸滅에 의해 청정해지는 등이다.

(이 송頌에 대해서) 논하여 말한다. 모든 불선不善의 색색을 범계라고 이른다. 이에 대하여 성죄性罪에 범계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차계遮戒는 (붓다가) 금지한 비시식非時食 등이다. 차계를 성죄가 아니라고 하지만, 붓다가 법과 유행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죄에 대한 계를 제정한 것은) 별도의 의도에 의해 금지시킨 것이다. 계를 받은 자가 (그 받은 계를) 범한 것에 대해서도 범계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성죄의 명확성을 위해서 다만 차遮라고 했던 것이다. 성죄性罪와 차遮罪로부터 벗어나는 쌍방에 대하여 계라고 이른다 설했다. …(중략)… 그 밖의 논사에는 이러한 설을 한 이도 있다. “계에 4종류가 있다. 첫째는 포외계怖畏戒인데 경계가 곤궁한 것과 악명이 널리 퍼지는 것, 벌 받게 되는 것, 악취로 사후에 전생轉生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동기로 시라尸羅(戒)를 수호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망계希望戒인데 이것은 내세에 선취善趣로 전생하는 것과 보다

높은 지위를 얻는 것, 많은 재산을 획득하는 것, 명예와 존경을 받으려는 욕구의 동기로 정계淨戒를 받는 것이다. 셋째는 순각지계順覺支戒인데 이것은 해탈과 정견正見 등을 구하여 정계淨戒를 수지하는 것이다. 넷째는 청정계淸淨戒, 소위 무루계無漏戒이다. 그(붓다·벽지불·아라한)는 영원히 업과 혹(번뇌)의 때를 떠났기 때문이다.”<sup>10)</sup>

마지막으로 계를 네 가지로 분류했다. 이것은 당시 세간 사람들의 경향을 분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불교도에게도 해당되지 않을까 한다. 사람에게에는 공포, 두려움에 의해 계 혹은 도덕을 지키거나 아니면 스스로 세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출세간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하여 계를 지키는 것이 동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종교는 사람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마음을 고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공포나 불안은 분노와 직결된 감정이며 실제로 공포심을 선동하여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무리들이 세간에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한 불안해하거나 성급하게 타인에게 불안을 조장시키는 것도 종교적인 비즈니스가 성립하지 않을까 한다. 그러나 두려움을 가지는 것, 두려움을 아는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방향이 분명하다면 두려움을 알고, 두려움을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불교에서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죄의식으로 보거나 악취에 떨어질 뿐만 아니라 생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자나 성자라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 5) 독자부檀子部

『삼보도론三寶度論』에 의거하여 계에 대한 독자부의 정의를 볼 수 있다. 『삼보도론』이 독자부의

10) 세친 『구사론』 권18 업품 제6 (T29, P97b~c)

전적이 된 것은 근래의 일이며, 이 서적의 존재가 고래로부터 알려졌지만 전통적인 위치부여는 명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일단 근래의 설에 따라 독자부의 것으로 한다.

계란 정어업명正語業命이다. (팔정도 가운데) 정어正語·정업正業·정명正命의 셋을 계라고 한다. 정어는 타인과 언쟁할 때 서로 비방하거나 중상모략, 혹은 험악한 말을 하거나 회론, 세간적인 담화, 쓸데없는 이야기 등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정업正業은 고의로 생명을 죽이거나 바랍직하지 않은 성행위, 의도적으로 타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정명正命은 비구승의 경우는 의복·의식·약 등을 재가로부터 공급받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정명正命이고 그 밖의 것은 사명邪命이다. 재가인의 경우는 무기·독·술·고기·생명 있는 것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이 정명이다.<sup>11)</sup>

여기서 계의 어원적 해석이나 원뜻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계는 정어업명正語業命”이라고 하여 팔정도 가운데 세 가지인 정어·정업·정명에 관해서 정의를 내렸다. 그리고 그것은 불살생·불투도·불음不婬·불양설不兩舌·불악구不惡口·불망어不妄語·불기어不綺語·불사명不邪命이라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정의와 계의 위치부여는 분별설부나 설일체유부, 혹은 대승에도 보인다. 더욱이 사명邪命에 대한 언급도 있으니 통불교적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독자부는 산스크리트어 푸드갈라pudgala라는 윤회의 주체가 되는 존재를 상정하였고 또 주장한 부파<sup>12)</sup>임을 알 수 있다. 푸드갈라는 일반적으로 ‘사람’, ‘개인’을 의미하는 말인데 여기서 “개인”을 성립시키는 실제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바라문교 등이 그 존재를 주장하였고 불교에서 비존재로 보았던 아트만Ātman(我)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여러 부파의 교의 중에서도 가장 특색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충분하지만 여기서는 위에서 언급한 계의 정의에 관한 것만 다루었다.

## 2. 대승(보살승)의 전적에 보이는 계의 정의

### 1) 『대지도론』에서의 계의 정의

대승에서의 계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대지도론』을 전통설로 지지하는데, 대지도론은 백 권이나 되는 방대한 전적으로 용수(Nāgārjuna)보살에 의해 저술된 『마하반야바라밀경』의 주석서로 쿠마라지바(Kumārajīva, 鳩摩羅什)에 의해 한역되었으며 원전은 현존하지 않는다. 용수보살은 『대지도론』을 통해서 당시 인도 최대세력인 설일체유부의 견해를 답습하여 그것을 비판하면서 성문승(소승)이나 외도의 질의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대승의 견해를 밝혀놓았다. 대승을 배우는 이라면 소승부파 가운데 특히 설일체유부의 아비달마 강요서인 『구사론』과 『대지도론』이 필독서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함경전의 설과 부파의 아비달마 없이 대승의 견해가 성립할 수 없고 또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며 많

11) 『삼보도론』 권상(T25, P18b)

12) <https://ja.wikipedia.org/wiki/犍子部>

武田宏道 『독자부의 푸드가라설』 (龍谷大學論叢 451호)

飯岡祐保 『ブトガラの運命』 印度學佛敎學研究 제47권 제2호, 平成21년.

은 고승들이 이 서적을 인용하였기 때문이다.

시라(Śīla,尸羅)는 진秦에서는 성선性善이라고 하는데 이는 선도善道를 기꺼이 행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라尸羅라고 한다. 혹은 계를 받고 선을 행하거나 아니면 계를 받지 않아도 선을 행하는 것도 모두 시라라고 한다. 시라를 간략히 요약해서 말하면 신체와 언어의 행위에 대한 율律儀인데 여덟 종류가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살상하지 말 것. 타인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자신의 것으로 하지 말 것(훔치지 말 것). 부적절한 성행위나 아울러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지 말 것. 거짓말을 하지 말 것. 거친 말을 하지 말 것. 헛된 말을 하지 말 것. 음주하지 말 것. 또한 건전한 경제활동을 보낼 것(도살업, 어업, 인신人身이나 가축 매매업, 무기 제조, 판매업 혹은 매춘 등의 직업은 금지). 이들을 계상戒相(계의 구체적인 조항)이라고 하며, 만일 이들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대로 하면 이를 파계破戒라고 한다. …(중략)… 만일 어떤 사람이 큰 이익을 바란다면 귀중한 보물을 아끼듯이 굳건히 계를 지켜야 하고 이는 마치 자기 몸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가령 대지의 일체 모든 것, 형상 있는 것은 모두 대지에 의해 머문다. 계도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계는 모든 선법善法에 의해 설 수 있기 때문이다.<sup>13)</sup>

『대지도론』은 위와 같이 계를 정의했다. 수동적으로 참으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능동적으로 선도善道를 행하는 것을 계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선도란 십선+善 혹은 불도佛道를 일컫는 말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오계나 팔계, 십선계+善戒로 설해진 계를 스스로 맹세하거나 특별히 계를

받지 않더라도 위에서 들은 조항을 지키도록 생활하는 것이 “계”라고 하였다.

## V 끝맺는 말

장광설이 되었다. 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기록해나갔다. 글줄을 따라가다 보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곁으로 드러난 자유로운 삶과는 다르다는 것에 숨고르기가 부드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글보다도 만들어진 이유와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는지 당시의 사회상을 그려보고, 또 현재의 지금을 비교해보면서 계율의 형성을 짐작한다면 충분히 납득이 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출발점이 正見인 바른 견해와 청정한 계율이라 하셨다. 이 두 가지가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바른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행자로서 부처님 가신 길을 가고자 식발염의했음진댄 계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청정한 계율이어야만 악처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

13) 용수보살 『대지도론』 권13(T25, P153b)

# 염불의 대중화와 포교에 관한 고찰 1

범성 / 사집과

목 차	1. 서론
	2. 염불의 정의
	3. 염불의 역사
	4. 염불 수행법
	5. 염불의 공덕
	6. 염불을 통한 포교
	7. 결어

## 1. 서론

염불은 한국불교에서 행해지는 갖가지 의식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일상적인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크고 작은 불교의례가 모두 염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염불은 사찰에서 일상적으로 행하는 의례이자 한국 불자들의 대표적인 신행이라 할 수 있겠다.

염불의 의미가 다만 종교적 의례나 신행의 절차에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에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염불은 수행 방법 중 하나로 그 자체로 오랜 역사와 사상적 전통을 지닌 독립된 수행법이기에 때문이다.

염불에 대한 근거는 초기경전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여러 대승경전에서는 염불 수행의 다양한 공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염불 수행의 가장 큰 공덕은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것이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본성을 깨달아 마침내 성불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경전에서는 극락왕생이나 성불과 같은 염불의 궁극적인 공덕 외에도 죄업의 소멸이나 질병의 완쾌와 같은 현세적인 공덕에 대해서도 열거하고 있다. 실제로 불자들은 불안하고 힘든 현세의 삶을 염불을 통해 달래고 복을 빌었으며, 염불을 통해 내세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이처럼 염불은 경전적 근거와 교리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한국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통용되는 수행임에도 불구하고 선불교 중심의 한국불교 풍토에서 언제부터인지 염불을 노인이나 하근기 중생들의 타력 신앙으로 다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흐트러진 불심을 하나로 모으고 염불 대중화에 앞장서서 불교의 제 2전성기를 열고, 또한 포교의 장을 연 대만의 성운 대사의 사례만 보아도 염불이 가지는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의 인식이 변해감에 따라 염불 또한 변화해 가는 양상을 띄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통상적인 전통 염불에서 대중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창작화되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제2회 조계종 학인 염불시연대회를 준비하며 그 과정에서 생긴 '과연 염불이란 무엇일까' 라는 호기심에서 시작되었으며, 염불의 기초적인 개념 정리 및 염불의 일반화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시대 변화에 따른 염불의 대중화와 그에 따른 포교에 대해 고찰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 2. 염불의 정의

염불이란 불교 수행법 가운데 하나로써 불보살에 의지하여 가피력을 바라는 타력신앙이다.

또한 제자가 부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의 작용, 수행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등이 청명과 염불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정각을 성취한 부처님이 법륜을 골려 중생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모인 제자들이 부처님을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염불이다.

부처님께서 『중일아함경』에서

“마땅히 한 법(一法)을 수행하고 마땅히 한 법을 널리 펴라. 한 법을 수행하면 문득 명예가 있게 되고, 큰 과보를 이루며 모든 선함이 널리 퍼지게 되고, 감로의 맛을 얻어 무위처無爲處에 이르며, 문득 신통을 이루어 모든 어지러운 생각을 제거하여 열반에 이른다. 어떤 것을 한 법이라고 하는가? 이른바 염불이니라”라고 하셨다.

또한 용수보살도 『대지도론』에서

“염불이란 수행자가 일심으로 부처님을 염하여 여실지혜如實智慧를 얻고 대자대비를 성취하기 때문에 착오가 없다.”라고 하셨다.

염불에서의 염念자는 한자에도 많은 용어가 있는데 관념觀念, 심념心念, 사념思念, 억념憶念, 칭념稱念 등이다. 이것은 염念해야 할 대상인 부처님의 개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염念의 용어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즉 부처님의 실상實相과 상호相好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관념염불觀念念佛, 부처님의 명호를 대상으로 할 경우는 칭명염불稱名念佛, 부처님과 공덕과 본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억념염불憶念念佛 등 다양한 용어가 나온 것이다.

또 염念하는 대상도 초기 원시불교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 한 분에 한정되어 있지만, 부파불교와 대승불교가 일어남에 의해 타방의 부처님이 출현하고 보살들이 등장하였다. 이에 아촉염불, 아미타염

불, 약사여래염불, 미륵염불, 관세음보살염불, 지장보살염불, 문수보살염불 등이 행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염불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으로 지눌의 설을 따르고 있다. 행동이나 말로나 생각으로 하지 말도록 되어 있는 모든 잘못된 일을 단연코 하지 않는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염불을 하여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또, 염불이란 어묵동정語默動靜 어느 때든지 부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마음을 그렇게 맑고 밝고 환하게 하는 데에 주안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하여 마침내 내 마음이 삼매의 경지를 거쳐 진여眞如한 원자圓覺의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최상의 염불이라고 하였다.

### 3. 염불의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불교가 전래된 이래 염불수행이 널리 유포되었다. 특히, 이 염불수행이 보편화된 데에는 신라의 원효 대사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원효 대사는 복잡한 교학敎學보다는 일반 민중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염불수행법을 민중 속에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극락왕생의 꿈을 가지도록 하였다.

이 밖에도 신라의 고승들은 『아미타경』, 『무량수경』 등의 연구를 통하여 염불수행의 뒷받침을 하였고, 또 염불할 것을 권장하였다. 특히, 광덕과 엄장의 염불수행이나 노힐부득과 달달박박의 염불을 통한 성불, 옥면郁面<sup>1)</sup>의 염불로 인한 서방정토왕생 등 현재 『삼국유사』 속에 많은 설화들이 남아 있으며, 염불결사운동<sup>2)</sup>도 널리 전승되었다.

신라 말에 선종이 지방호족의 비호 아래 새로운 세력을 형성할 당시, 교학에 대한 비판은 극심하였

1) 『삼국유사』 감통感通편, ‘옥면비염불서승郁面佛念佛西昇’에는 염불만으로 극락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아미타불을 염불한 끝에 마침내 서방 극락세계로 올라갔다는 옥면郁面이라는 여자 노비의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는 통일신라시대에도 아미타신앙이 널리 퍼졌음을 보여준다. 『금강산건봉사사적(金剛山乾鳳寺事蹟, 1882)』에 옥면의 이야기가 나와서 옥면 전생의 무대가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였음이 밝혀졌다.

2) 최초의 염불결사는 758년(경덕왕17)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에서 승려 발장發藏이 개설한 미타만일회彌陀萬日會이다. 이후 신라 전역에서 일반 신도들에 의한 만일염불결사가 유행하였다.

으나 염불수행은 배척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을 할 수 없는 근기에게 염불을 할 것을 권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염불화두念佛話頭라는 독특한 것을 창출하기까지 하였다. 즉, 염불을 하는 그 주인공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끊임없이 입으로 염불하면서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것이다.

선종의 명맥을 이어받고 있는 현재의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특히 '자성미타유심정도自性彌陀唯心淨土'에 입각한 염불수행이 많이 권장되고 있다. 이는 선정과 염불을 조화시킨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중기의 지눌 이후 유행하기 시작하여 나옹懶翁에 의해서 정착되었다.

나옹은 실제로 사바세계가 곧 정토임을 주장하는 자성미타유심정도를 화두로 삼기도 하였다. 이는 염불로써 왕생극락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시 고려 불교계의 믿음을 선과 조화시킨 것이다. 이것을 염불선念佛禪이라고 한다. 따라서 염불은 잡념을 쉬게 하는 좋은 방편이요, 나옹에게 있어서 염불은 곧 참선인 것이다.

고려시대의 염불은 초기에는 대개 자력수행의 방편으로 수용되었으나, 후대에는 점차 민중신앙으로써 주로 본원력에 의지하는 청명염불을 실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전통은 조선시대 불교계에 큰 영향을 미쳐 조선 중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승려들이 화엄華嚴과 염불과 선을 함께 중시하는 풍조가 성행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많은 사찰에 염불당念佛堂이 있어서 만일회萬日會를 시설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청념하여 정토왕생을 원하는 염불의 모임들이 많이 생겨났다. 만일회는 뜻을 같이 하는 불자들이 1만 일을 기한으로 하여 나무아미타불을 청념하는 법회를 말한다.

당시에는 불교의 세력이 약화되었을 뿐 아니라,

일제의 간섭까지 심하여 사찰의 재정도 매우 어렵게 되었다. 당시 불교는 내적 어려움과 일제의 탄압 등으로 자유와 희망을 염원하던 시기였다. 이 시대에 각 사찰에서 재정 확보와 불교의 부흥을 위해 일어난 운동이 바로 각종 계모임과 만일염불회라는 수행 결사였다. 한국불교 교단사에 염불결사가 가장 많이 일어난 시대이기도 하다.

만일염불회의 가장 대표적인 사찰은 강원도 건봉사이고,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교양 흥국사, 울진 불영사, 북한산 화계사, 신촌 봉원사, 안암동 개운사, 해인사 원당암, 통도사 극락암, 도봉산 망월사, 강남 봉은사와 더불어 이곳, 청도 운문사 또한 운악 두안 雲岳 斗曇 스님의 주관으로 만일염불회가 성황을 이루는 정토의 성지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실천된 당시의 염불은 대개 오직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sup>3)</sup>에 힘입고, 자비 광명에 의지하여 정토에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청명염불이었다.

#### 4. 염불 수행법

가장 초보적 종교적인 의식으로 보편적인 염불수행의 궁극 목적은 번뇌를 버리고 열반에 들게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선수행의 난해 함보다는 쉬운 염불 쪽이 수행의 방법으로 더 많이 채택되었고, 선종의 고승들까지 이 염불수행을 권장하는 특이함을 보이게 되었다.

염불은 참선처럼 까다로운 위의威儀나 조용한 환경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근기根機의 차별 없이 아무데서나 손쉽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을 통한 자력수행만으로는 금생에 성불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염불수행을 선택하기 때문에 많은 수행층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참선이 삼매로서 그 극치를 삼듯이 염불의 극치도 삼매에 들어가는 것이다.

3) '무량수경', "부처님의 본원력으로 그 이름만 듣고도 왕생하길 염원하는 자는 모두가 다 그 국토에 이르러 저절로 불퇴전의 지위에 오를 것이다."

염불을 할 때는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3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믿음(信)으로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둘째는 원願으로 현실의 괴로운 사바세계를 여의고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자신만의 왕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부모나 친척, 나아가서는 못 생명 있는 자들의 왕생을 바라는 것이다.

셋째는 행行으로 부처의 명호를 염하면서 마음에 부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마음가짐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실천적인 행이다. 이때 불보살의 명호를 부르는 행이 잠시도 쉼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부처님을 부르는 소리가 입으로 나오지만 소리를 귀로는 반문문자성返聞聞自性으로, 지극정성으로 정근하여야만 한다.

또, 염불수행에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첫째는 지성심至誠心으로 지극정성으로 신명身命을 다 바쳐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둘째는 심심深心으로 부처님의 본원本願을 깊이 믿고 아미타 부처님의 제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셋째는 회향발원심廻向發願心으로 자기가 쌓은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배풀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든 선근善根을 극락세계로 회향하여 극락왕생을 구하는 마음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와 마음가짐을 토대로 염불 수행을 하는데, 염불 수행법은 여러 가지로 분류되고 있으며 그것은 아래와 같다.

### 1) 삼시염불 수행법

시간적인 측면에서는 삼시염불三時念佛과 별시염불別時念佛로 분류된다. 삼시염불은 새벽과 낮, 황혼녘의 세 번으로 나누어 염불하는 것이고, 별시염불은 1일, 3일, 7일이나 14일, 21일, 100일 등으로 특별한 기간을 정하여 도량에 들어가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염불하는 것이다.

별시 염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찰을 중심

으로 백일기도, 천일기도, 심지어는 만일염불萬日念佛도량까지 성행하게 되었다.

### 2) 4종염불 수행법

염불수행의 방법으로는 4종염불이 일반적인 분류로 채택되고 있는데 4종이란 청명稱名, 관상觀想, 실상實相, 관상觀想의 염불법이다.

청명염불은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는 청념稱念의 염불을 말한다. 여기에는 산란한 마음으로 하는 산심염불散心念佛과 고요한 마음으로 하는 정심염불靜心念佛, 소리의 크고 작음으로 나누는 대념염불大念念佛과 소념염불小念念佛, 한 부처님의 명호만을 부르는 정행염불正行念佛과 여러 부처님의 명호를 일컫는 잡행염불雜行念佛로 나누어진다.

관상염불觀想念佛은 일심으로 한 부처님의 불상을 관하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이 염불을 뒤는 이는 죽은 뒤에 그 부처님의 정도에 왕생한다고 한다.

실상염불은 자신과 아울러 일체 법의 진실한 자성自性인 법신法身을 관하는 것이다.

관상염불觀想念佛은 단정히 앉아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 부처님의 상호와 공덕을 관하여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삼매三昧에 들면 분명히 부처님을 볼 수 있고, 한 부처님을 보게 되면 모든 부처님을 볼 수 있게 되며, 이렇게 뒤는 이는 죄장罪障이 소멸되어 그 불토佛土에 왕생한다고 한다.

이상의 4종염불 중 청명염불과 관상염불觀想念佛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염불의 뜻과 같으나, 실상염불과 관상염불觀想念佛은 법신과 삼매의 중득이라는 점에서 자력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리고 청명염불 수행의 한 의식으로서 오회염불법五會念佛法이 있다. 다섯 음음(공상가치우)의 곡조에 따라 빠르고 느린 차례로 염불하는 것이다.

제1회는 평성平聲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느리게 부르고, 제2회에는 평성과 상성上聲으로 역시 느리게 부르며, 제3회에는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부르고, 제4회에는 점점 빠르게 부르고, 제5회에는 더욱 빠르게 '아미타불'만 부르는 것이다. ㉞



## 염불대회를 다녀와서

2018년 9월 19일 두 번째 조계종 학인염불시연대회가 열렸습니다. 봄부터 연습해서 뜨거운 여름을 보낸 각 반 스님들이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누구 하나 대상 아닌 스님이 없었습니다. 열정으로 이끌어주신 염불교수스님과 응원 해주신 어른스님, 그리고 정성으로 연습했던 스님들께 박수를 보냅니다.

- 단체 전통 대상 : 대교과 봉청금강팀 '신중작법'
- 창작 최우수상 : 사집과 호거산 사리불팀 '반아바라'
- 창작 인기상 : 사미니과 운문의 선재동자들팀  
'다시 만난 화엄의 세계'
- 개인 전통 최우수상 : 사집과 지안 '축원 화청'
- 전통 우수상 : 사집과 서륜 '화청'
- 창작 우수상 : 사집과 법운 '우리말 임종염불'
- 창작 원력상 : 사미니과 진정 '경허 스님 참선곡' 





## 조계사 앞마당을 가득 채운 부처님 가피

지안下 / 사접과

“공~덕 고오웅덕”, 대회를 준비하며 상에 대한 마음보다는 부처님의 공덕을 두루 회향할 수 있기를, 염불하는 나의 모습을 보며 누군가는 신심을 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발원했습니다. 그리고 염불 소리를 들은 일체 유정무정이 지혜로 가득 차기를 염원했습니다. 5분도 채 되지 않는 염불 소리로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서투르더라도 진심이라면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하기에 최선을 다해 저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습에 임했고 그 과정에서 염불에 대한 관심이 더 늘었을 뿐 아니라 마음공부도 함께 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대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결과로 기도 회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빌려 두 손 모아 큰 힘이 되었던 범성 스님과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_()



## 과정을 즐기면 보살,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

덕원 / 대교과

화엄반은 “봉청금강팀”을 구성하고 호법신중護法神衆께 도량을 잘 수호하여 기도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공양하고 예배하는 의식인 신중작법을 준비했습니다.

제한시간은 8분 시간에 맞추기 위해 저희는 예민해졌고, 때로는 서로 날이 선 채로 시간을 쪼개어 연습했습니다. 하루하루 연습할수록 ‘과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 예선은 통과할 수 있을까?’ 부담과 걱정 그리고 욕심이 생기기도 했지만, “염불하는 자 누구인가?”라는 대회의 주제를 생각하면서 염불연습을 수행으로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회 당일 이른 새벽,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까지 부족한 연습을 하는 저희에게 학장스님께서는 ‘결과를 즐기는 것은 중생이고, 과정을 즐기는 것은 보살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선무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잘 맞았습니다. 기대치 않은 좋은 결과가 믿을 수 없고 꿈만 같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해주신 모든 대중들께 감사드립니다.





## 헛노력이 공부라

-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 혜국 큰스님 탐방기

성경/사교과

바람이 선선해지는 초가을, 우리는 충주 석종사 금봉선원의 혜국 큰스님을 친견하기 위해 떨리는 마음 안고 길을 떠났습니다. 다소 평평한 마을길을 지나니 우뚝 솟은 산자락에 석종사가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큰스님 목소리만 큼이나 도량이 시원시원하고 웅장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백척간두百尺竿頭가 가슴을 스칩니다. 이 도량에서 간화선의 활발발한 참구가 진일보進一步하며 꿈틀거리고 있는 것일까? 도착하자, 인자하게 편안대소하는 큰스님 모습이 도량 한 쪽에서 바위에 새기는 작업 중인 상선약수上善若水와 이어집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법문이 시작됩니다.

청지호월조선심 淸池皓月照禪心 맑은 못과 밝은 달이 선심을 비춘다.

‘淸池’, 맑은 못. 스님네 마음보다 맑은 못은 없어. 스님네 마음의 물을 지



금 바다보다 넓다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스님네 지금 이 마음의 물이 진짜 바다보다 넓어요.

“내가 지금 어느 쪽 손 들었어?” “오른쪽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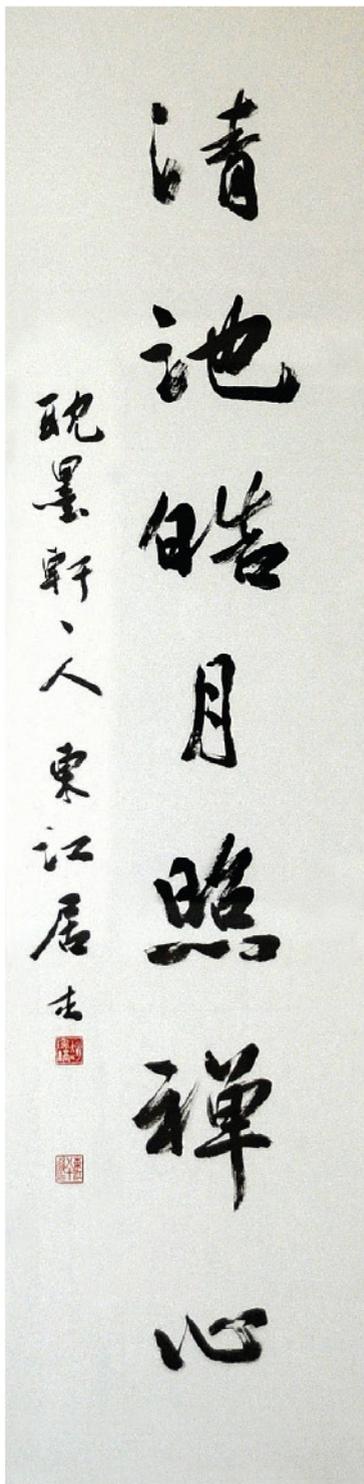
“지금은?” “왼쪽이요.”

“왼쪽, 오른쪽이 달라. 남자다, 여자다. 나다, 너다. 그런데 오른쪽 들어올리는 내 에너지나 왼쪽 들어올리는 내 에너지나 같아, 달라?” “같습니다.”

하나야. 그 에너지를 우리는 생명이라고 해. 그 생명, 스님네가 만들어 봤어? 나는 내 생명을 만들어 본 일이 없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밤새 만들어 놓은 산소를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호흡을 통해서 빌려 쓰는 에너지이고, 떠다니는 구름이 비가 되어 물이 되면 그 물에서 빌려온 에너지이고, 대지에서 나온 음식, 과일, 떠오르는 태양열 에너지에서 열량 빌려다가 따뜻한 체온 만들고…….

그럼 결국 내 생명은 우주에서 빌려다 쓰는 거지. 그 우주 생명이 스님네 본모습이야. 그 마음의 물은 바다보다 넓어요. 타끌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 있어. 여러분 마음이 ‘淸池’ 인데, 그러면 아주 맑은 달이 비칠 수밖에 없어.

‘皓月’, 훗탕물에는 달이 있어, 없어? 있긴 있는데 안 보이는 거거든. 달이 안 비치는 물은 없어. 그런데 안 보이잖아? 스님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칠정례 하면서 망상 떠올라 안 떠올라? 그렇지. 온갖 생각이 다 떠올라. 근데 아주 재밌는 연속극 볼 때 망상 떠올라 안 떠올라? 안 떠오르지.



정지호월조선심

그때는 흙탕물 젖을 때라. 계속 큰 망상을 지어 주니까 보일 턱이 없지. 그런데 “지~심~귀명례” 하는 순간 물이 조금 가라앉아. 그러면 가라앉은 만큼 망상이 보여야 돼. 잡념이 보여야지. 바깥에서 들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거든. 망상, 잡념은 누가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 요 안에 있는 거지. 요 우주에 있지. 작은 몸뚱이 아니잖아. 내가 걸어 온 길 이고, 8식에 저금해 놓은 거니까 마음이 가라앉을 때 만 보이는 거지. 보이면 잡념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 채고 이것이 수행이구나, 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

‘照禪心’ 그래도 여러분들 본래 마음은 비추고 있으니…….

난 지금도 예불 시간을 기다려요. 꼬옥 기다려요. 저 큰 스승, 거룩한 스승, 저분이 이 세상 안 왔으면, 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참나를 찾아가는 길은 진짜로 못 해요. 애당초 못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중 된 걸 밤에 일어나서도 정말 즐겨요. 아 부처님 정말 고맙습니다. 저런 스승에게 날마다 아침저녁으로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절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즐거움이고 행복이거든. 진짜 행복해요.

스님네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출가했잖아. 예불 모시는 시간이야말로 많은 대중이 ‘지~심~귀명례’ 하면 참말 신심 나요. 그걸 자꾸 길들이면 행복이와. 예불 모실 때마다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중노릇은 잘 하면 말이요, 정말 부러울 데가 없는데 못 하면 시원찮아요.

**Q** 큰스님을 뵈니 가슴이 너무 떨립니다. 큰스님께서는 유튜브에 능엄경, 능가경, 화엄경 등 교를 설하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정진하시면서 경까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참선해서 화두로써 공부하고 싶은데 경전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선방에 가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그냥 가르쳐 주었어. 너 이리 와. 초발심 꺼내 봐. 법화경 꺼내 봐. 노스님들이 행동으로 보여주었고. 강원을 졸업 안 했어도 기본적으로 중물이 푸욱 들어요. 그래서 사교 입선捨敎入禪을 해도 됐었어. 근데 지금은 선방에 딱 오면 일자무식꾼이 돼.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배우려고도 안 해. 그리고 부처님께서 교가 필요 없다면 왜 평생을 그 교를 그렇게 설했겠냐 그 말이여.

인도에 가려면 몇 시 비행기 타고, 몇 시에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여.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교란 말이여.

동산양개 스님 치문에서 배웠지? 그거 배울 때 난 울었어. 그 어른이 그렇게 출가해 놓고 공부가 그렇게 안 됐던가 봐. 회의가 와서 위산 스승 찾아가서,

“미움, 고움, 다 떠나가서 조선 심照禪心으로 무정설법이 무궁무진하다는데 그 소릴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습니까?”

“이 사람아, 내 입은 자네한테 그런 말 해주라고 있는 게 아냐.”

옛날의 제자들은, ‘스승은 무조건 우리를 위해 있는 분이다. 실상의 언어를 보여주려고 존재한다.’ 라고 생각했어. 나는 요즘에 스승이 없는 것도 맞지만 제자다운 제자가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봐. 난 그렇게 생각해. 근데 동산 스님은 두말 안 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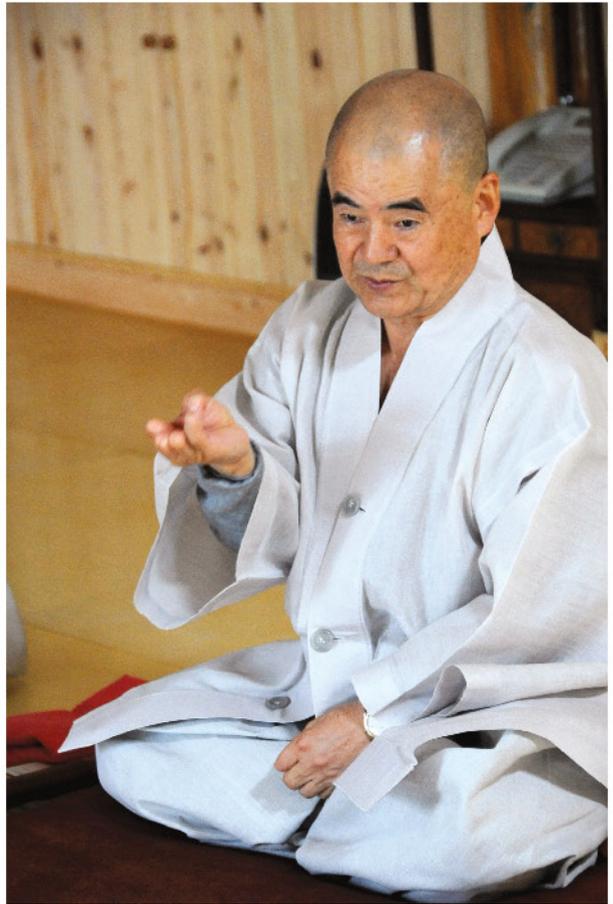
“스승님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지. 입으로는 무정설법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여. 말 나오기 이전에 그걸 바로 알아야지. 정말 자비로운 대답이거든.

“스승님 못 알아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디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운암담성 스님을 찾아가 보게.”

그러면 그게 다 교였어. 찾아다니는 게 다 교였어. 지금은 찾아다니질 않아요. 이는 것도 없이 선방에 몇 십 년 지나가 봐요. 기본이 안 되는 거여, 기본이. 나는 내 상좌한테 교를 하라고 그 때. 우리 젊었을 때 해인사 69년, 70년 강원에서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질 않았거든. 밤새 이놈 자다



일어나서 읽고 저놈 자다 일어나서 읽고……. 밤새 그걸 듣고 있으면 가슴이 절절이 아려와. 어떨 때는 밤은 깊은데 소쩍새는 왜 이렇게 한량없이 울어대는지…….

그래, 꼭 교를 졸업하고 선방 가라. 요즘은 달라졌어.

Q 큰스님께서 10만 배 하실 때, 마지막 즈음에 가서 진정한 절, 참다운 절을 느끼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연비한 것을 한 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단 한번도. 왜냐, 약한 사람이 하는 거니까. 정말 잘해보겠다고. 그니까 이게 자랑할 일이 아닌데, 내가 법문할 때 이렇게 손을 잘 들었는가 봐 이렇게. 근데 꼭 그런 사진을 찍어서 연비한 것을 자랑하는 것처럼. 정말 자랑할 일이 아니거든, 내가 약해서 중노릇 잘해보겠다고 한 내 다짐이니까.

성철 큰스님께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다. 껌껌할 때 보는 놈이나 환할 때 보는 놈이나 보는 놈은 똑같아. 눈으로 봐선 못 본다, 보는 놈 그놈을 봐야 된다.”고 하셨어.

지금 방장스님 계신 곳에 선방을 만들어 몇 명 3년 결사하자고 했는데 다 도망가고 나 하나 남았어. 그러다 성철 큰스님께 몇 번 혼나고 절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절을. 절을 시작했는데 7만 배쯤 되었을 때 악이 받쳐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 근데 7만 배 넘어서니까 그날은 아침부터 식이 맑아졌는지, 아주 신심이 나더니 절하는 걸 잊어버렸어.

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절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업식, 급한 거, 남 미워하는 거, 원망하는 거, 질투하는 거,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를 끌고 다니는 참부처를 떠받드는 절……. 절 그거 참 아름다운 거잖아. 그 느낌이 딱 온 거야.

그래서 성철 스님께 “오늘부터 절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 미친 놈아!”

“스님, 지금까지 헛절 했습니다. 7만 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와 노장님 엄청 좋아하시. 우리 스님한테 자랑할 정도로 좋아해.

그래서 새로 절을 시작했어. 그런데 좀 하다 보니 괜히 새로 절을 시작했나 했지……. 금방 다리가 아프고 죽겠더라고. 하하하

그 교비 넘고, 그 교비 넘고, 그 교비 넘을 때, 아~ 내가 이걸 이어나가기 위해선 연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연비를 한 거라. 난 지금도 내 상좌들한테는 연비하지 말라 그래. 그 힘 가지고 그냥 공부를 해 나가야지, 난 연비한 놈치고 건강 지탱한 놈 하나도 못 봤어. 스님네가 그런 교비를 거치고 나면 자기 자리가 잡히게 돼.



Q 저는 큰스님께서 7만 배 한 이후에 참절이라고 하신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헛절이라고 표현하신 7만 배까지의 그 과정이 더욱 소중하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어떻게 하면 중노릇 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지. 7만 배 헛절이 없으면 그게 어떻게 나와? 7만 배 헛절 없으면 그게 안 나와요. 스님네가 방황하고 힘들고 경 읽어놓은 게 없으면 20년, 30년 후에 바로 보이는 그게 안 나와요. 헛노력이 바로 공부라. 헛노력이…….

그것이 중노릇 잘 하는 길이라. 중노릇은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삼시 예불, 내가 오늘 하는 일, 그것만 잘하면 중노릇은 잘하게 돼 있어. 내가 오늘 스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행복을 느끼자. 예불 모시고 마당 쓸고 하는 것 다 중노릇이야. 선 것은 익게 하고 익은 것은 설게 해야지. 예불 모시고 부지런히 수행하는 것은 설었어. 게으르고 놀고 하는 것은 익은 거여. 그것을 설게 해야 돼.

오랫동안 시원한 물 한 모금이 간절했습니다. 초학자인 저희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는 큰스님, 이제야 목을 축인 느낌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가피로 오늘을 살아가며, 하루하루 진실한 헛노력을 기울이며, 그 속에서 수행의 행복을 만나고자 합니다. 큰스님, 운문사에서 가까이 뵈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



## 전국비구니 복지회에서 의료비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전국비구니회는 질병의 고통으로 수행 정진과 전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구니스님들의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의료비 혜택으로 스님들의 수행과 전법 활동이 원활해져서 승가와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하고 수행자의 위기가 지켜지기를 기원합니다.

### ● 지원대상

- 1) 대한불교 조계종 비구니스님, 사미니스님, 보문종 비구니스님
- 2) 비구니회비납부, 결제신고 필한 스님
- 3) 질병치료 의료비 납부가 어려운 스님

### ● 지원종류

- 1) 지원 금액 :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30%를 지원합니다.
- 2) 지원 금액의 한도 : 스님 한 분에게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 3) 지원 제외 조건 : 외래 진료 의료비 제외, 비급여 항목은 제외합니다.
- 4) 의료기관 : 전국 모든 병 의원

### ● 문의사항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백천문화재단  
 전화 : 02-3411-8103 / 팩스 02-3411-8108  
 전국비구니회 홈페이지(www.kbiguni.org)에 신청

인거나 뉘살이를 즐기고 경교의 뜻을 계행을 지니며 모든 중생을 불쌍히 여기면 온갖 소원이 이루어진다.



천인선수千人禪修, 천 명이 모여 참선하는 행사



참선요가를 하고 있는 재가불자님들

부주지 명혜 스님과 무상사 조실 대봉 선사  
의 법거량 - 2017년 명혜 스님의 인가식에서

## 대도시 속에서 참선한다

- 선수행공동체, 홍콩 수봉선원

법어 / 대교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5층에 있는 문을 열면 통로에 방석이 두 개가 놓여져 있고 진지한 표정으로 참선을 하고 있는 남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막 퇴근한 모양인지 약간 불편해 보이는 복장이다. 잠시 후 통로 건너편 방에서 종소리가 나자, 앞쪽에 앉아 있던 남자가 빠르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간다. 동시에 방에 있던 여자가 약간 흥분한 모습으로 나온다.

이것은 일주일에 세 번 열리는 “공안 인터뷰” 날의 풍경입니다. 장소는 홍콩의 중심부 Causeway Bay에 있는 수봉선원입니다. 7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간 승산 선사는 선종의 가르침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Kwan Um School of Zen(관음선종)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100여 개 센터가 있고 수봉선원은 홍콩 지부입니다. 두 개의 인터뷰실 중 한쪽에는 선원의 주지이며 모두에게 “스승(師父, shī.fu)”으로 사랑 받고 있는 대관 선사가 있고 또 다른 방에는 부주지이며 지난해 지도법사로 인가 받은 명해 스님이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만물에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주는 ‘무無!’ 라고 했습니다. 개에게는 불성이 있습니까?” 또는 “왜 달마 대사는 수염이 없는가?”와 같은 고전적인 공안부터 “한 남자가 선 센터에 와서 담배를 피워 그 재를 불상에 떨어뜨렸다. 당신이 선 센터의 주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승산 선사가 제시한 현대적인 공안까지 학생은 수행단계에 따라 문답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빌딩가에 위치한 결코 넓다고는 할 수 없는 도량에는 때로는 40여 명 가까이 학생들이 모입니다. 모두가 대도시의 분주함과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일상에서 틈을 내어 참선을 하러 찾아오는 것입니다. 수행을 시작한 지 15년째인 학생은 “참선을 시작하고 나서 자신이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매사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수봉선원이 탄생한 90년대 초반 홍콩에서는 선禪이 전혀 인정되지 않았었습니다.

“선? 선은 올바른 불교라고 말할 수 없다.”라며 비판받았습니다. 당시에는 정토신앙만이 불교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불교의 양식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중국에도 많은 선사가 있는데 왜 한국의 선사를 스승으로 시봉합니까?”

그러나 스님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선의 나침반’ 강의를 개강하고 먼저 원시불교를 가르치고 다음 대승불교, 그리고 선불교를 단계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또한 아직 참선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선유(참선요가)라는 간단한 단전호흡을 가르쳤습니다.

도량에서의 기본적인 수행 방법은 Kwan Um School of Zen과 같습니다. 세계 어디든 누구든 수행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입니다. 참선, 공안 인터뷰 그리고 염불과 108배 등이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라니기도, 신중기도, 그리고 300배 등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특별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선의 가르침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라고 스승은 말합니다. 아무리 참선을 오래 하고 공안 인터뷰에서 정답을 줄 수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생활에서 활용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송산 선사는 공안을 통해서 Correct situation(올바른 상황), Function(역할)과 Relationship(관계)을 체득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야 일상생활에서 보살행을 실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대도시의 삶에서 직면하는 암 등의 질병, 이혼, 우울증, 자살 충동, 실업과 같은 인생의 난국에서 일상의 공안을 통해 어떻게 대답을 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가져올 때마다 스승은 고뇌하는 그들에게 선종의 가르침을 통해 도움을 줍니다.

항상 현실 속에 함께 하려는 오랜 노력은 결실을 얻어 선원은 홍콩 사회에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종의 가르침도 널리 퍼져 최근에는 다른 선 그룹과 공동으로 1년에 한 번씩 “천인선수千人禪修”, 천명이 모여 참선하는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란타우섬에 각수사覺修寺가 건립되어 선원에 기증된 다음부터는 대규모의 장기적인 집중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도심이 아닌 자연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수행공간입니다. 각수사에 두 사람뿐이었던 출가수행자도 지금은 리투아니아, 중국,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대만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오게 되어 여러 국적의 스님들이 선원과 각수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수사에서 열리는 집중수행에도 세계 각국에서 수행자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제 학교 및 청소년 대상의 선禪 캠프 등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에서 청소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선원을 찾고 있습니다.

단지 도량에 앉아 있는 것만이 수행이 아닙니다. 사회에 나가서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선의 참모습이며, 이를 지켜가는 수봉선원은 홍콩만큼이나 역동적입니다.

선원의 수행을 이끌어가는 것은 스님들뿐만이 아닙니다. 재가수행자 중에서도 경험을 쌓고 선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법사(Dharma Teacher)라고 하며 이들은 목탁 또는 죽비를 치고 때로는 초보자들에게 지도를 실시하는 등 선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법사들은 스님들에게 워크샵 등을 통해 교육을 받습니다. 또한 법문이나 강의가 있을 때는 통역팀의 봉사자들이 광동어와 영어를 동시통역하고 AV 팀의 멤버가 음성의 조절이나 동영상 촬영을 담당합니다.

홍콩의 승가는 송산 선사의 가르침 안에 있는 Together Action(함께 하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테마별로 모은 “What’s up” 그룹에 문자를 보내면 순식간에 멤버들이 모여 회의를 열고 그 활동은 동영상 편집, 때로는 식사를 함께 하거나 하이킹을 가는 등 다양합니다. 해외에 있는 선 센터에 수행하러 가기도 합니다. 또한 수행을 함께하는 도반에게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선원에 다니던 분이 파산하여 영영정지와 5년간의 영영금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실업한 그분은 아침마다 도량에 나와 혼자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수행에

회의적이었던 가족들은 결국 가장을 응원하게 되었고 마지막 재판에는 가족과 선원의 동반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법정의 증언대에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선 수행자입니다. 선을 수행하여 가족을 돕고 사회를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당신들은 막으려합니까?” 재판 결과 그는 승소했고 영입재개가 허가되었습니다.

출가자, 재가수행자, 남녀노소 등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경쟁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을 나누며 서로 성장시키는 선禪 수행공동체의 모습이 수봉선원에 있습니다.

70년대에 숭산 선사(崇山 禪師)가 심은 선의 씨앗은 앞으로도 홍콩이라는 땅에서 계속 꽃을 피울 것입니다. 🌸



각수사를 방문한 국제학교 학생들을 맞이하는 대관 선사



**Q : 어떻게 인기를 받으니까?**

A : 숭산 선사는 1700공안에 대해서 자유자재하고 수행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마음(Not moving mind)을 얻은 학생에게 재가 출가의 구별 없이 인기를 하셨어요 이런 학생들을 “지도법사”라고 하고 현재 32명의 지도법사들이 세계각지에서 또 다른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도법사가 되어야 공안 인터뷰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인기를 받은 다음에 계속 수행해서 공식적으로 일찰(一擲)(Dharma combat, 법거랑 또 문답)를 통과하면 진실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인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Dharma transmission(법통法統)을 얻어 선사가 됩니다. 현재 전세계에 관음선종의 선사들이 열여섯 분 있습니다.

**Q : 수봉선원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A : 선원 최초의 선사이신 수봉 선사를 따라 선원 이름을 지었습니다.1994년 7월 17일, 수봉 선사는 홍콩 센터에서 14세의 어린 소녀와 인터뷰를 하셨는데, 선사는 소녀에게 “보편적인 소리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그녀가 바닥을 쳤는데 선사께서는 “정답.”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순간가사 장삼을 수한 상태에서 열반하셨습니다.

##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오도悟道 시스템과 오늘

윤창화 / 민족사 대표, 당송시대 선종사원 연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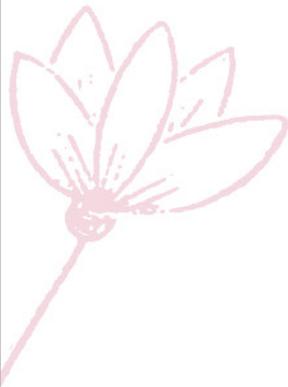
### 1. 당송시대의 선불교

선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시대는 당말 오대唐末五代(835~959)와 북송시대이다. 당말 오대는 선종 오가가 성립하는 등 사상적으로 융성했고, 북송시대는 선문화적으로 꽃을 활짝 피웠다. 이 시기 선불교는 중국 천하를 석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송시대, 특히 북송시대에는 선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어서 사대부도 선을 모르면 지식층에 속하지 못했다. 사대부와 지식층들이 만나는 자리에서 대화의 주제는 으레 선禪이었다. 선이나 선시禪詩를 모르면 대화의 축에 낄 수 없었다. 여성 불자들도 선을 모르면 고준한 담론의 자리에는 함께 할 수 없었다.

북송시대에는 조사선시대(당말 오대)에 형성된 고척 공안에 대하여 계송을 붙여서 선의 세계를 표현하는 이른바 송고頌古, 염고拈古 등 송고문학頌古文學이 크게 발전했다. 설두중현雪竇重顯(980~1052)의 『송고백칙』과 각범혜홍覺範惠洪(1071~1128)의 『석문문자선石門文字禪』, 원오극근의 『벽암록』, 평지정각의 『종용록』 등 유명한 선승들의 탈속한 언어(계송)는 송대 지식인들의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뒤흔들어 놓았다. 왕안석王安石(1021~1086), 소동파(1037~1101), 황정견黃庭堅(1045~1105) 등 내로라하는 송대의 지식인들은 모두 선불교로 투신했다. 당송의 시문학은 선을 만나서 정신세계를 확장해 갔고, 선은 시문학을 만나서 그 지평을 확대했다.

이와 같이 당송시대 선불교가 한 시대를 풍미, 대표하는 트렌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조도일, 조주, 백장, 황벽, 임제, 운문, 설봉의존, 설두중현, 원



오극근, 평지정각, 대혜종고 등 선禪과 인격, 지성을 겸비한 불세출不世出의 선승들이 연달아 배출되었기 때문이다. 선종사원의 체계적인 오도悟道 교육과 지도 시스템을 통해서 깨달은 부처들이 무진동無盡燈처럼 출현했기 때문이었다.

## 2.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오도悟道 시스템

당송시대 선종사원(특히 당대 선불교)은 종교적 역할보다는 부처와 조사를 만드는 작불作佛학교 기능이 더 강했다. 선종사원의 방장(주지, 당송시대에는 주지가 곧 방장임)은 총장이고 청규는 학칙이고 법문은 강의였고 남자들은 학인이었다. 그래서 남자들을 ‘학인學人’ 이라고도 부른다. ‘부처를 배우는 사람’ 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당시 선원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남자들을 지도·교육했고,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깨달은 부처로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선원처럼 화두를 준 후 조금은 무작정 같은 방법으로 앉아 있으라고만 한 것인가?

당송시대 선원총림의 남자 지도 교육 시스템, 오도悟道 시스템은 네 가지로 매우 체계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①법문法門 ②독참獨參(개별적인 지도), ③청익請益(보충 교육), ④좌선坐禪으로서, 이 네 가지 방법을 통하여 깨달은 부처와 조사를 배출시켰다.

방장(주지)의 상당법어 등 법문은 정안正眼과 반야지혜를 열어주기 위한 것이고, 독참은 개인의 참구 상태를 지도,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청익은 별도로 추가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제도로서, 추가 질문을 통하여 의문점을 풀었다. 좌선은 도거掉擧(잡념 등 번뇌 망상), 간혜乾慧(어설픈 지혜)기, 번뇌 등 분별망상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문과 독참이었다.

법문 : 방장이나 조실의 법문은 여러 종류가 있었다. 가장 고준한 법문은 상당법어上堂法語로서 ‘오참상당五參上堂’ 이라고 하여 5일에 1회 있었다. 조참과 만참은 소참이라고 하여 매일 같이 있었으며, 수시법문과 보설은 부정기적인 법문으로서 필요할 경우에만 있었다. 법문만 대략 한 달에 25회 이상이 되었다(사찰에 행사가 있거나 울력이 많은 날, 너무 더운 날, 상당법문과 조참이 겹치는 날에는 하나만 함).

독참 : 독참은 남자가 방장스님 독대를 통하여 참구 상대, 공부 상태를 점검받는 것으로서, 의무적·정기적인 것이었다. 당대唐代와 오대五代에는 격일(2일에 1회)로 있었고, 북송과 남송 시대에는 5일에 한 번씩 있었다. 수행자라면 누구나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방장실로 가서 그

1) 간혜乾慧 : 비록 지혜를 얻었다고 해도 아직 원숙하지 못한 얕은 지혜, 선정禪定의 힘이 충실하지 못한 지혜.

간의 공부 상태에 대하여 지도·점검받아야 한다.

청익: 청익은 비정기적 비의무적인 것으로서 추가로 질문할 것이 있는 사람, 더 묻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만 찾아가서 묻는 것을 말한다.

좌선: 좌선은 당·송, 북송시대까지는 하루 몇 번, 몇 시간 좌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 많이 하든 적게 하든 개인의 능력에 맡겼다. 프리였다. 좌선이 하루 4회 좌선(四時坐禪) 즉 새벽,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루 4회로 제도화된 것은 남송시대부터로, 이 시대는 선불교가 지리멸렬하던 시대였다.

그런데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이러한 남자지도 시스템(법문·독참·청익·좌선)은 가람 설계도, 가람 배치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당송시대 선종 가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당우는 법당(法堂(설법당)과 방장(方丈(방장의 거실)과 승당(僧堂(선당)이었다. 이 세 당우가 가람의 중앙에 배치되어 수행 및 오도(悟道) 시스템의 핵심적인 건물이 되었다.

법당에서는 반야지혜의 법문을 설하고, 방장실에서는 독참과 청익을 하고, 승당에서는 좌선을 했다. 법문을 듣지 않고는 정법안과 반야지혜를 갖출 수 없고, 방장이 없이는 남자들을 지도, 점검할 수가 없으며, 승당이 없이는 좌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승당은 좌선당인 동시에 남자들의 생활공간이었다.

### 3. 오도(悟道)를 위한 청규의 제도적 장치

장로종색이 편찬한 『선원청규』(1103년) 10권 백장규승송(百丈規繩頌)과 양억(楊億(974~1020)의 「선문규식」에서는 법문과 독참(입실), 청익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입실入室(독참)과 청익(請益)을 제외한 그 나머지(즉 좌선)는 수행자의 근태(勤怠(부지런함과 게으름)에 맡긴다. 많이 하든(上) 혹은 적게 하든(下) 그것은 일정한 규정(常準)을 두지 않는다. 그리고 선원의 모든 대중들은 조참법문(아침법문)과 만참법문(저녁법문)을 들어야 한다. 장로(주지)가 법당에 올라가 법을 설하면 주사(主事(중요 소임자) 및 대중들은 안립(雁立)하여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한다.(『전등록』 6권, 「백장회해」 章 부록, 「禪門規式」. “除入室請益, 任學者勤怠, 或上或下, 不拘常準. 其闍院大眾, 朝參夕聚. 長老上堂陞坐, 主事徒衆, 雁立側聆.” 대정장 51권,

p.250c. 신찬속장경, 63책, (『禪苑清規』 제10권)

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 남자 지도 및 오도悟道 시스템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조참과 만참(朝參夕聚, 즉 법문), 입실入室(즉 독참)과 청익이었다.

이 시스템을 오늘날 대학과 비교하면 법문은 가장 고준한 법문으로서 대학원 강의와 같고, 조참과 만참은 대학 강의와 같고 독참은 교수의 개별적인 지도이고 청익은 학생이 교수실에서 받는 보충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체계적인 교육방법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남자를 지도·관리했던 것이다.

다만 좌선에 대해서는 많이 하든(上) 혹 적게 하든(下) 일정한 규정(常準)을 두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송시대 조사선에서는 좌선보다는 반야지혜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좌선방법은 몇 번만 지도하면 더 이상 지도할 필요가 없이 당사자가 알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안이나 화두 참구는 수행자마다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 점검하지 않을 수 없었다.



#### 4. 오늘날 우리 선원의 지도 시스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의 지도 시스템을 당송시대와 비교하면 어떤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고찰해 본다면 우리나라 선원은 남자교육 시스템이나 지도 방법, 오도悟道 시스템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두를 준 후 그냥 앉아 있으라고만 할 뿐, 아무런 지도, 교육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선원에 따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좌선시간도 대략 하루에 10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된다.

그러나 당송시대 선종사원에서는 아무리 많이 앉아 있으려고 해도 하루 좌선시간은 5시간~5시간 30분을 넘지 못했다. 말은 바 소임, 울력, 법문 청취, 공양, 독참, 청익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좌선할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30분 이내에 불과했다. 새벽에 1시간(실제는 40분), 오전에 2시간, 오후에 1시간, 밤에 1시간 30분가량이 최대였다. 그래서 당송시대에는 하루 몇 시간 좌선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개인의 능력, 즉 프리(free)로 둔 것이다.

남악마전南嶽磨博의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로지 좌선만 한다고 하여 부처가 되는 것

은 아니었다. 『전등록』에 수록되어 있는 1400여 명의 선승 가운데, 좌선하다가 깨달았다고 하는 선승은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언하대오言下大悟(법거량이 끝나자 대오했다)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 선문답을 통하여 깨달았고, 또는 영운도화靈雲桃花, 향엄격죽쥬嚴擊竹과 같이 기연機緣을 통하여 깨달았음을 알 수 있다.

좌선 즉 오로지 고목처럼 앉아 있는 것은 대해 선사가 『서장』에서 비판하고 있는 고목사회 선枯木死灰禪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것은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화두 참구의 열 가지 병통)’ 가운데 하나인 ‘장미대오將迷待悟(미혹한 채 앉아서 깨달아지기를 기다리는 것)’와 다르 없다. 좌선 시간에 절대적인 비중을 둔다면 오늘날 우리나라 선원에서는 하루 10시간 정도 좌선 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임제 선사나 대해 선사 등 당송시대보다 더 훌륭한 선승이 많이 출현해야 하는데, 오히려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선원에는 이 네 가지 시스템(법문, 독참, 청익, 좌선) 가운데 좌선(선정)만 있고, 나머지는 없다. 법문도 겨우 결제일과 해제일에 한해서만 들을 수 있고, 그나마 방장이나 조실이 있는 곳에서만 들을 수 있으므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참과 청익도 미미한 수준이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깨달은 선승이 출현한다는 것은 맹구우목만공이나 어렵다고 본다.

무엇이 문제인가? 한마디로 오도悟道 시스템, 즉 교육방법, 지도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과 지도의 시스템으로 선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던 당송시대 오도시스템의 부활을 간절히 기원해 본다. ☉



**윤창화尹暢和** 민족사 대표 논문으로는 「해방 후 講經의 성격과 意義」(『대각사상』 5집, 2002), 「漢岩의 자전적 구도기 一生取闕」(『한암사상』 1집, 2006), 「無字話頭十種病에 대한 고찰」(『한암사상』 3집, 2009), 「경허의 지을자 한암」(『한암사상』 4집, 2011), 「성철스님의 오매일여론 비판-오매일여의 진실과 고험」(『불교평론』 36호, 2008), 「경허의 酒色과 삼수갑산」(『불교평론』 52집, 2012), 「탄허의 경전번역의 意義와 강원교육에 끼친 영향」(『한국불교학』 66집, 2013) 등이 있고, 저서로는 『근현대 한국불교명저 58선』(민족사, 2010), 『왕초보, 禪학사 되다』, 『당송시대 선종사원의 생활과 철학』(민족사, 2017)이 있다.

# 내 안의 붓다

범건 / 사미니과



티베트 스님의 논리(딱셀)수업을 듣다가 티베트의 강원에서는 현교(顯敎)만 20년 동안 공부를 한다는 말에 놀란 기억이 있다. 그 다음에 밀교(密敎) 공부를 시작하는데 기간 없이 평생 공부한다. 공부 따로 수행 따로인 것이 아니라 배움 그 자체를 수행으로 삼고, 문사수(聞思修)를 통해 경전을 공부한다. 문(聞) 즉 배움이 부족하면 문해(聞慧)가 부족할 수 밖에 없고, 문해(聞慧)가 부족하면 사(思) 즉 관찰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으며, 사(思)가 없으면 사해(思慧)가 부족할 수밖에 없기에 결국 도를 닦음에 부족할 수밖에 없다. 티베트의 강원은 문사수의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 5대 경전 등 불경과 논서들을 체계적으로 배움으로써 먼저 현교에 대한 이해와 확신을 얻게 하며 그런 연후에 밀교의 깊은 수행법을 배우고 실천수행하게 한다. 티베트는 티베트의 전통에 맞는 교육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한 1600년 넘는 우리 불교의 전통이 있다.

## 우리의 강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편집부

강원은 삼국시대에 사찰 내에 강당을 짓고 경학을 강설한 데서 시작되었다. 신라시대 이후에는 각 종파별로 강원을 두고 그들의 소의경전을 중심으로 경전을 연구하였다. 강원의 원류는 고려 중기 보조 국사 지눌이 정혜결사를 조직하여 돈오점수를 시작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그 후 태고보우를 거쳐 조선 초 벽송지엄이 배출되어 사집과가 정해지고, 명종 때를 전후하여 부용영관과 경성일선(1488~1568) 등이 나와 사교과와 대교과의 기틀을 마련하여, 선조 때 청허·부휴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17세기 인조~숙종 때에 이르러 월담설제·월지도안 및 상봉정원 등과 백암성총(1631~1700)이 나와 제도를 완비하여 전국적으로 정착된 것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사원의 교육제도는 다섯 단계로 그 발전과정을 구분해 볼 수 있다.

- ① 교학시대 : 불교 전래 이후 선종 전래까지
- ② 교·선 병립시대 : 신라말·고려초 문종까지
- ③ 선교 융섭融攝시대 : 천태종·조계종 개종開宗 이후 고려말까지
- ④ 선교 양종시대 : 조선 태조에서 선조까지
- ⑤ 선교 겸학시대 : 휴정·부휴 스님 이후

선교겸수는 선조 때 청허휴정에 의해 구체화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조선

조가 개창되면서 국가적 승유억불정책에 의해 강제적인 선교의 통폐합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휴정 이후로는 승려라면 누구든지 선과 교뿐만이 아니라 기타 제반 불교를 아우르는 전통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에서 훌륭한 강사가 훌륭한 선사인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청허 스님은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여 승려는 선교를 겸수하되 선에 앞서 참다운 교가 선행되고 그런 연후에 사교입선捨敎入禪해야 반드시 얻는 바가 있을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뛰어난 살 길(出身活路)이라 하였다. 그러나 청허 스님은 수행자 모두가 이 경로를 밟아가야만 한다고 하지는 않았는데 선은 상근기를 위한 법이요, 교는 중하근기를 위한 법이라 하여 교의 불가피함은 중근기, 하근기에 있음을 지적하고 상근기는 교가 없어도 스스로 본자원성本自圓成의 일물一物을 발견하여 반야광명般若光明으로 직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염불을 선과 동일귀지同一歸旨로 보아 권장하였다.

### 선원의 예비문, 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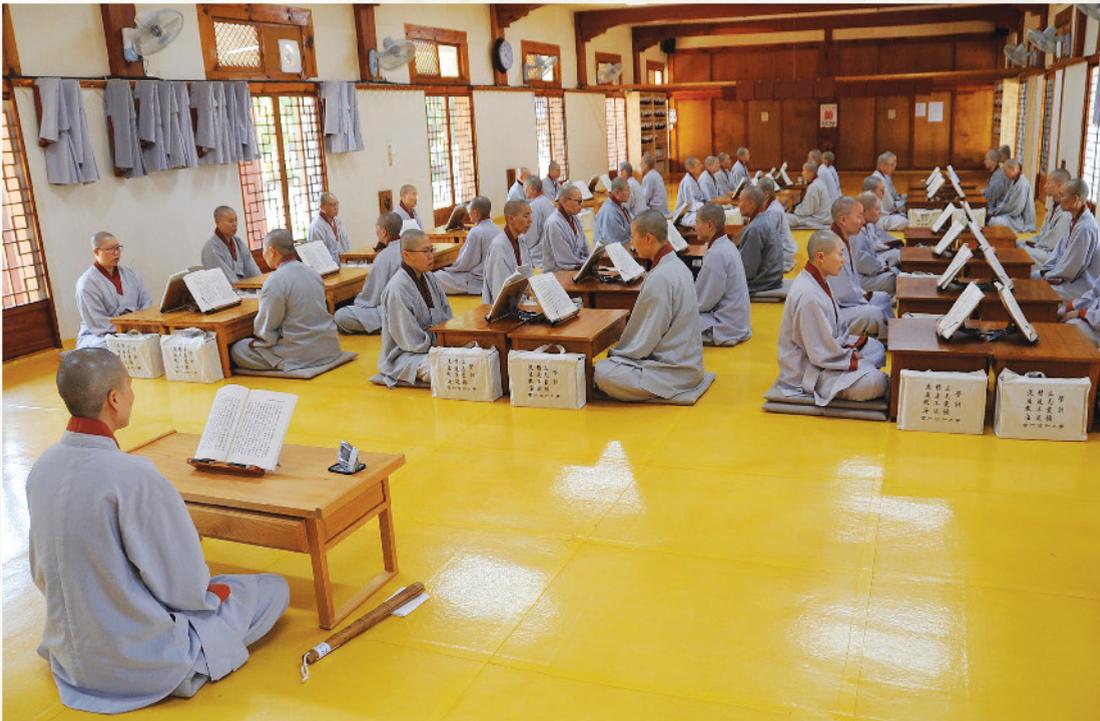
학제는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의 4단계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이 밖에 수의과隨意科가 설정되어 있다. 사미과는 초등학교, 사집과는 중학교, 사교과는 고등학교, 대교과는 대학과정에 해당하며, 수의과는 대학원에 해당한다. 수의과는 대교과를 졸업한 자가 진학하여 전공과목을 4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다. 강원의 입학자격은 출가수도를 3년 이상 하고 사미계를 받은 10세 이상의 남녀에게 부여되었다. 출가수도 이후로 한다면 승가교육의 총 수업연한은 17~18년 정도가 된다. 이 과정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단축되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였고, 사찰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 승가교육제도(10년제)

	과정	설치목적	수준	년 한	이 수 과 목
1	사미과	율신律身의 법을 알게 함	초등	1년	①수십계受十戒 ②조모송주朝暮誦呪 ③반야심경般若心經 ④초심문初心文 ⑤발심문發心文 ⑥자경문自警文 (3년제인 경우, 사미율의沙彌律儀, 치문경훈經門警訓, 선림보훈禪林寶訓 이수)
2	사집과	간경의 준비교육	중등	2년	①선원제전집도서禪源者詮集都序 ②대혜서장大慧書狀 ③법집별행목절요병입사기法集別行錄節要并入私記 ④고봉선요高峯禪要
3	사교과	간경연구	고등	4년	①수능엄경首楞嚴經 ②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 ③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 ④원각경圓覺經
4	대교과	간경연구	대학	3년	①화엄경華嚴經 ②선문염송禪門頌頌 ③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 등

선원은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의의가 컸다. 선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사교·비구계를 받은 20세 이상이 된 자에게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대선사大禪師·대교사大教師에 이르려면 강원(대교과를 수료하고 수의과 4년 이상 전수)을 마치고 선원에 들어가 夏20안거를 수행하여 법랍이 20夏 이상이 되어야만 되었다. 그리고 주지는 대교과 졸업자로서 선원에서 夏10안거를 하여 법랍이 10夏 이상 된 자라야 될 수 있었다.<sup>1)</sup>

이수하는 과목을 보면 화엄과 선이 결합한 선종의 총지가 드러나며 공부의 목표는 사교입선 즉 교리를 버리고 선에 들어감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처음 승가에 들어오면 보조지눌 스님의 「계초심학인문」을 통해 발심하여 대중 속에 들어가 수행할 적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말하며 어떠한 몸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익히고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통해 세간의 욕락을 버리고 수행에 전념할 마음을 굳게 다지고 야운 스님의 〈자경문〉을 통해 스스로를 일깨워 수행에 매진하며 〈사미울의〉를 통해 십계+戒와 크고 작은 행동거지, 〈치문〉을 통해 들뜬 마음을 막아 샅된 행동을 경계하여 수행의 문에 들어서고 〈도서〉를 통해 선과 교를 일심으로 회통한 다음에 〈결요〉를 통해 샅된 알음알이를 배척하고 여실지견을 세우며 〈서장〉과 〈선요〉를 통해 올바른 참구법을 익히는 것이다. 『금강경』은 반야의 핵심을 드러내어 대승공관을 닦기 위한 대승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고 『능엄경』과 『원각경』은



1) 『조선불교통사』, 「행해行解」, 이능화

선종의 사상적 기반이 된다. 「기신론」은 여래장사상을 드러내어 견성성불을 이상으로 하는 선종에서 중시하는 논서이다. 『화엄경』은 만법을 통괄해 일심을 밝히는 것을 이상으로 하는데, 〈화엄경소초〉의 저자인 청량징관은 남북선종과 우두선을 모두 수학한 선사로 화엄과 법화와 선을 하나로 묶어 화엄선을 만든 스님이다.

### 강원의 학습방법, 논강

학생들은 그 날의 일정한 양을 공부하고 다음날 아침 상강례上講禮가 끝나면 반별로 둘러앉아 논강을 시작한다. 이때 먼저 강첩講籤을 담은 강통講筒으로 중강仲講과 발기發起를 1명씩 선정한다. 논강이 시작되면 발기로 뽑힌 자가 책을 덮고 문장을 따라 해석하며, 반원은 조용히 듣다가 자기 견해와 달리 해석할 때에 기탄없이 토론하며, 의견일치를 보지 못 하는 부분을 강주講主에게 묻게 된다. 이것이 끝나면 조실祖室에 들어가 문강問講을 하는데 그 순서는 중강이 먼저 그날 과정의 과목을 암송한 다음 본문을 해석하고, 논강 때에 의견을 일치되지 못 했던 부분도 이때 해결한다. 논강시간에 해석하는 자를 ‘발기’라고 하고 문강시간에 발기가 해석한 내용을 참작하여 강사 앞에서 직접 해석하여 잘못 되고 잘된 것을 인정받는 역할을 하는 자를 ‘중강’이라고 하였다.

### 수행자는 학문이 아니라 깨달음을 위해 출가한다

조선조까지의 강원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면서 강원은 배우는 기간과 과목 등 변화가 있었지만 크게 변화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강원은 초심자들이 모여 선지식을 모시고 함께 생활하면서 승가의 가풍과 법도를 익히고 육화六和정신에 의해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질을 향상시키는 즉 중물을 들이며 사는 곳이다. 옛 어른들은 강원에 사는 것 자체가 수행이라고 했다. 삼시예불, 율력, 수업과 입선, 논강의 하루 일과를 꾸준히 해내는 것이 수행이고, 대중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이켜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닦는 곳이 바로 강원이다.

시대가 요구하는 청빈한 수행자의 상은 변화하지 않았지만 수행환경은 변화하여 옛 가풍을 지키기가 어렵다. 4년제 대학으로 변모한 강원은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과목을 배치하고 있고, 학인의 수는 줄어 대중 속에서 차제와 위의를 배우며 단련하기 어렵고, 지식만 늘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한다. 삼독에 오염된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공부해도 깨칠 수가 없다. 3세 아이도 말할 수 있으나 80세 노인도 행하기 어려운 것, 즉 이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것이 깨우침이기 때문이다. 수행에 중심을 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강원이 소중해진다. 어디서 이 많은 선지식을 만날 것인가? 🙏

참고문헌 - 『강원총람』,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1997

# 추승구족秋僧九足

편집부

①



②

어른스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스님들은 발이 9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바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해의 결실을 거두는 시점에 바쁜 것은 비단 스님들만은 아닐 것입니다.  
 한해살이가 어떻습니까?  
 수확이 많은 적든 정성을 쏟았던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

⑦ ⑧



3



5



6



4

- 1 기다려지는 겨울
- 2 향기로운 가을의 정취
- 3 나무 사이
- 4 동문회를 준비하는 교무, 주지, 재무, 종무국장스님
- 5 배주밭의 사집반 스님들

- 6 성지순례 무사회향을 기원하는 여법한 화엄반 스님들
- 7 가을과 함께 오신 반가운 동문선배님
- 8 은행나무에서 즐거운 한 때를 보내는 사교반 스님들
- 9 염불과 법고대회, 모두 최선을 다한 사집반 스님들
- 10 오리 송편은 누가 먹었을까

9



10





## 지금, 여기 그대로 (同時具足相應)

승혜 / 사집과



그림 / 사집과 선아

‘지혜로운 사람은 필요한 모든 것이 자기 안에 있음을 알고 자기를 계속 변화시키려 한다. 그래서 누구에게 화낼 일도 없다. 반면 어리석은 사람은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기를 기대하고 그렇지 않으면 화를 낸다. 바람결에 던진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 불행은 불행을 저지른 이에게 돌아온다.’ 세계적인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나에게서 시작하는 불행’이란 제목의 짧은 경구의 글로, 요즈음 이 내용에 대해 느끼는 바가 많다.

2천 6백여 년 전 보리수 아래서 얻은 부처님의 큰 깨침을 『소부경전』의 「우다다」편에 보면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그것은 연기緣起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다.”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연기법緣起法을 말할 때 ‘지혜로써 철저하게 꿰뚫어 보고 선명하게 보는 훌륭한 방법은 무엇이나?’라는 질문에 부처님은 ‘장자여, 나의 거룩한 제자들은 연기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이와 같이 살펴야 한다.’ 즉,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	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此滅故彼滅

『잡아함경』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상관관계 속에 놓여 서로 의지하여 들인 듯하지만, 다르지 않은 한 뿌리인 것을 알아야 한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기에 존귀하며, 더불어 함께하니 소중한 행복의 것이리라.

출가수행자로 발심하여 느낀 점은 ‘인과因果’가 분명하며,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빨라졌다는 것이다. 어쩌면 좁은 공간에서의 생활과 내용이 단순하고, 단조롭다 보니 그만큼 자신을 직시하며 관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예민해졌기 때문인 것 같다. 나의 경우 솔직히 먼저 조건이 되는 인인을 심으면 그 이후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인과가 진행되는 ‘시간차’가 있다고 여겼다.

이런 가운데 톨스토이의 글과 일맥상통하게 새롭게 인식된 것이 화엄 심현문의 첫 번째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이다. 즉, 모든 사물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모두 동시에 이미 갖추어진 연기적 관계라는 것이다. 현재 속에 과거와 미래가 다 함께 담겨 있다는 뜻이며, 지금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일어나는 다음의 결과라는 것이다.

앞서, ‘인과를 깨닫는 주기가 빨라졌다’고 느낀 것은 이미 내가 생각한 바로 그 순간, 결과가 내재해 있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누군가 내게 불만을 제기하고, 관계가 악화되었다면, 한번 돌이켜 볼 일이다. 상대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떠했는지, 혹시 ‘저 사람은 항상 부정적이어야’라는 생각이 이미 내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상대에게 했던 무수한 말과 행동’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소멸한다는 연기법, 부처님은 연기법을 아는 것이 바로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고 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연기법의 첫 번째 원칙은 선후先後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뒤(前後)가 없으며, 시작과 끝(始終)의 구별이 없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며, 자유자재로 역순逆順이 서로 섞이더라도 결코 뒤섞여짐도 얽힘도 없으며, 옳고(是) 그름(非), 선악善惡, 아름다움과 추함(美醜) 등 일체가 대립적이고 모순적인 것이 다 동시에 갖추어져서 그대로 그 개개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사회적 관계, 현상의 이면에는 이와 같은 연기의 동시同時인 것이다. 마치 연꽃이 처음부터 꽃과 열매가 함께 존재(花果同時)하는 것처럼, 부처님의 전법교시傳法教示,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하는 이유이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자등명自燈明 법등명法燈明, 조사스님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입처개진立處皆眞, 모든 어른스님들께서 ‘마음을 잘 쓰라’고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되는 순간이다. 지금 이 자리에서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 내가 하는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나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임을. 그리하여 매 순간 정성을 다해 움직이는 모든 것이 불보살의 화현으로, ‘행복한 수행자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선택’이라고 하신 교수스님의 말씀이 새삼스럽다.

운문사 들어오는 솔바람 길에 보면 이 글귀가 있다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법구경』 172)’ 비록 과거에는 깨어 있지 않았더라도 지금 깨어 있는 것, 제대로 발심하여 깨어 있는 삶을 살면서 나태해진 나 자신을 알아차려 스스로 반조返照하는 수행자로 거듭나고자 한다. ☸



그림 / 사집과 선아

##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지우 / 대교과

기록적인 폭염과 유난히 비가 많이 왔던 지난여름이었습니다. 풀은 또 왜 이리 뽑아도 뽑아도  
쑥쑥 자라나는지, 대자연의 위대함에 한없이 무력해지기만 했던 여름!

내가 풀을 뽑는 건지 풀이 나를 뽑는 건지, 운문사에서 늘 하던 일이니까 별 생각 없이 선종도  
아니요 악종도 아닌 무기無記의 상태로 풀 뽑고 도량 쓸며 방학을 지냈습니다.

그러던 방학 중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량을 참배하던 보살님이 법륜상 안쪽에서 풀을 뽑고  
있는 저를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남편으로 보이는) 거사님에게 “저 봐라, 마음 쓴 만큼 더 예뻐진  
다 아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는 별로 마음 쓴 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제가 여기서 배웠던 대로  
잡초가 많아져서 뽑았을 뿐.

마음을 쓴다는 말을 우리는 평소에 잘 씁니다. 대체로 주의를 기울여 실수가 없게 하는 것, 무  
언가를 정성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살님이 말한 것처럼 마음을 쓰면서 주의를 기울여 정성스럽게 도량을 청소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면, 부끄럽지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  
는지 마음챙김이 잘 안 되고 있었구나 싶기도 합니다.

정신없이 하루를 바쁘게 지내다보면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에 와 있는지조차 잊고 지친 몸을  
누일 이부자리 시간만 기다리기 일쑤입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은 하루해가 질 때면 지는 해를 바라  
보며 오늘도 공부에 진전이 없었다며 두 다리 뻗쳐놓고 통곡을 했다는데, 우리들은 내 마음 쓰는 것  
도 모르고 하루해가 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니 쓸쓸한 웃음이 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대중스님들, 특히 청풍료 스님들은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내 마음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신지요?

이렇게 저는 요즘 '마음 쓰는 것' 이 화두가 되었는데 마침 얼마 전 수업시간에 『화엄경』 「정행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행품」에는 그 유명한 선용기심善用其心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음을 잘 쓰는 데서 모든 공덕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잘 쓰면 큰 공덕을 얻는다.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그 마음을 잘 쓰면 곧 온갖 수승하고 묘한 공덕을 얻어서 모든 부처님 법에 마음이 걸림이 없으며,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의 도에 머물며 중생을 따라 머물러 항상 버리고 여의지 아니하며, 저 모든 법 모양을 다 능히 통달하며 온갖 나쁜 것을 끊고 모든 선한 것을 구족하며, 마땅히 보현의 색상 제일과 같으며, 일체 행과 원이 모두 구족하며, 온갖 법에 자재하지 않음이 없으며, 중생의 제2도사가 되리라.

또한 여기에 덧붙여 일상에서 140가지의 마음 쓰는 법(140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워서 자고 설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심지어 대소변을 보고 세수할 때의 마음 쓰는 법까지도 말입니다.

140가지의 원을 보고 있자니 '어떻게 이렇게 사소한 일까지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상황에 맞게 생각해 내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하셨다는 듯한 학장스님의 말씀. "140가지 이걸 다 기억하려 말고, 우리는 딱 한 가지 원願만 세우면 됩니다. 마음 잘 쓰게 해달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거지요~." 명쾌한 답변에 저의 답답했던 가슴도 시원해졌습니다.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을 통제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지 않으면 갑자기 한 생각 불뚝 일어나 정말 아무 것도 아닌 일로 도반스님과 다투기도 하고 짜증이 밀물처럼 밀려 오기도 합니다. 울력하는 도중에도, 예불하러 법당 가는 길에도, 발우 공양하는 도중에도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을 잘 살핀다면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 될 것입니다.

한순간도 방일하지 않도록 분단위, 초단위로 스케줄이 짜여진 운문사는 공부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이제야 몸소 느낍니다.

「정행품」에서 특히 마음에 들었던 원願을 소개하는 것으로 글을 마칩니다.

원두발 때는 것을 볼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오욕의 원두발 가운데 애욕의 풀을 뽑아 제하기를 원할지어다\_()

경을 읽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의 설하신 바를 따라서 모두 가져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할지어다\_()

잠자다가 막 깨었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모든 지혜를 깨달아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원할지어다\_() 

## 아상我相과 하심下心, 그 멀고도 가까운 거리

진오下 / 사교과

은사스님께서는 제게 하루 일과 기도를 반드시 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 숙제는 매일 108배를 하는 것과 금강경 독송을 하는 것입니다. 운문사에서 생활하다가 방학 때 은사스님이 계신 절에 가면,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는지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사스님께서 새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진오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무엇이나?" 예상하지 못 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금강경 독송을 하면 좋다고 해서 읽기만 했을 뿐, 어떤 의미인지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의무적으로 숙제를 했었습니다.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금강경 제16분인 능정업장분能淨業障分에서는 금강경을 수지독송受持讀誦하면서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반드시 지옥이나 아귀, 축생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의 사람들이 자신을 업신여김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모두 소멸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이 사람은 아득다라삼막삼보리, 즉 최상의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 글귀를 보았을 때, 경을 독송하는 수승한 일을 하는데 다른 이들에게 무시당하는 일이 생기고, 또 무시를 당하면 왜 업장이 소멸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조六祖 혜능慧能 대사께서는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은 비록 일체 중생에게 공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지만, 많은 생에서 지어왔던 두터운 업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멸사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금생에서 끊임없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는다면, 업장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장애를 소멸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금강경에 설의說誼를 하신 함허涵虛 득통得通 스님께서는 남에게 천대를 받고도 그저 억울함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상我相이 없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상이 없으면 다시는 윤회하는 업을 짓지 않고, 비록 과거에 지었던 무량한 죄업이 있을지라도 죄의 뿌리까지 이미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초기 경전에서는 상相을 네 가지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팔리어로 산나(sañña)는 인식이라는 의미의 상으로 쓰였고, 팬뉘띠(paññatti)는 상을 개념과 명칭으로써 정의하였습니다. 니뉘따(nimitta)는 삼매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영상을 상이라고 말하였고, 산스크리트어로 락샤나



(laksana)는 부처님의 32상 80종호의 좋은 특징을 상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산냐, 상을 없애는 방법은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몸과 마음의 현상을 바로 알아차리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금강경을 배우는 내내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상我相의 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함허 스님은 아상이 없다는 것은 타인보다 아래에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인 하심下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심下心... 사교반에 올라와 이 단어가 순간순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운문사에서 치문과 사집을 지내고 사교반이 되면서, 청풍료에서 금당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당이라는 분리된 생활공간은 상반 스님과 하반 스님의 시집살이에서 보다 여유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연스레 몸과 마음은 이미 화엄반이 된 것처럼 위풍당당 해졌습니다. 그럴수록 운문사의 생활과는 대조적인 은사스님이 계신 절에서의 삶은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개의 소임을 살아야 하고, 몸은 하나인데 사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저를 부를 때면, 힘에 버거웠습니다. 운문사에서는 대접받는 예비 4학년이지만, 절에서는 충충시하 속으로 돌아온 행자였습니다.

은사스님이 계신 절에만 다녀오면,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암울한 상태로 지내던 중에 함허 스님께서 아상이 없다는 것은 타인에게 하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보면서, 어느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행자 시절에는 두 손 모아 차수하고, 어른스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시면 그것이 자신의 실수든 그렇지 않든 즉각 인정하고 참회하며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출가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교과 3학년이 되어 하심을 잊어버렸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가치라고 붙들고 있는 나의 것들을 모조리 타파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에 불평했고 지금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 한 마음 돌이켜서, 절에서의 삶도 저보다도 더 바쁜 은사스님을 시봉하면서 마치 부처님 시자였던 아난다처럼 살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제는 은사스님께서 금강경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이 무엇이라고 질문하시면 “善男子 善女人 受持讀誦此經 若爲人輕賤 是人 先世罪業 應墮惡道 以今世人 輕賤故 先世罪業 卽爲消滅 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데도,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이 사람은 전생에 지은 죄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이번 생에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전생의 죄업이 곧 소멸되고 반드시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얻으리라.” 대중스님들, 이번 생에서는 앓으나 서나 금강경을 수지독송하면서, 아상을 녹이고 하심하면서 금강경 행자로 살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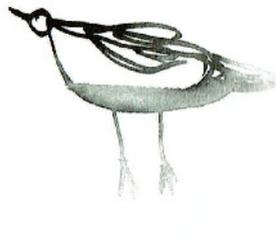




## 가을을 맞는 소회 所懷

- 법정 스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읽고

원각 / 한문불전 대학원



삶은 소유가 아니다. 순간순간의 “있음”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 때일 뿐 그 한 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

“가을에 책을 내며” 법정 스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육체의 병으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 들던 스님께서 내놓은 주옥같은 글입니다. 10년이 지난 가을, 또다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에서 다시 보게 되는 글입니다.

마무리에도 잣대가 필요합니다. 잣대를 갖는다는 것은 망망대해에서 나침반을 갖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에 밀려 길을 떠났다가도 때로는 혼침 속에서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지침입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은 한 때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말하는 글 중에는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는 소노 이야코의 계로록 戒老錄이 있습니다. 늙어가며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적은 이 글은 아주 솔직합니다. 지나간 이야기는 정도껏 하라, 모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내가 늙었다는 것을 자각하라, 자신의 고통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말라, 노인이라는 사실을 실패의 변명거리로 삼지 말라. 등등.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신을 구체할 것을 말하는 계로록의 이야기와 법정 스님의 시와 같은 말씀은 다른 분위기로 지금을 최대한으로 사는 법을 알려줍니다.

만물이 여러 가지 빛깔을 내고 결실을 내며 마무리하는 지금, 낙엽이 거름이 되어 열매가 씨앗이 되어 다시 시작하는 지금, 지금 이 순간을 지극한 아름다움으로 이끄는 글을 만나보기 바랍니다.

법정 스님의 말씀으로 남은 글을 대신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는 것이다.  
내가 걸어온 길 말고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었음을 깨닫고  
그 길이 나를 성장시켜 주었음을 긍정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일의 과정에서 길의 도중에서 잃어버린 초심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근원적인 물음  
“나는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이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서  
그때그때 마무리가 이루어진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음이다.  
내려놓음은 일의 결과나 세상에서의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어  
자신의 순수 존재에 이르는 내면의 연금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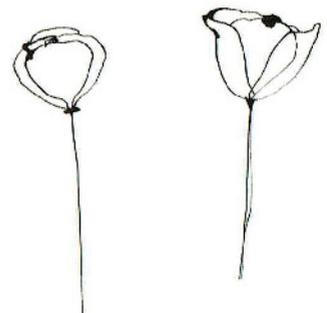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다.  
채움만을 위해 달려온 생각을 버리고 비움에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이고 그 비움이 가져다주는 충만으로 자신을 채운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의 본질인 놀이를 회복하는 것이다.  
심각함과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천진과 순수로 돌아가 존재의 기쁨을 누린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금이 바로 그 때임을 안다.  
과거나 미래의 어느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나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임을 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지나간 모든 순간들과 기꺼이 작별하고  
아직 오지 않은 순간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열어둔 채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용서이고 이해이고 자비이다.  
용서와 이해와 자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새롭게 일깨운다.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 귀의 歸依

제가 부처님을 따라 발심하여 출가한 이래로 부처님의 위신력만 믿고 항상 '제가 애써 닦지 아니하여도 여러께서 삼매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 몸과 마음이 본래 서로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그만 저의 본심을 잃어버렸습니다.

- 능엄경

우리는 행복하고자 한다. 어떻게 행복을 얻을 것인가? 불교는 세상을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 불교는 우선 내 눈부터 고쳐놓고 나의 안목을 바꾸라고 말한다. 부처님께 예경하지만 부처님은 창조주가 아니다. 부처님은 학생들을 지도하여 그들을 변화시키고, 지식을 얻게 하며, 심신을 수련하게 도와주는 선생님과 같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대신해서 공부할 수 없고, 대신해서 상급학교에 갈 수 없다.

부처님의 원력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힘에 감응하여 신비로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만, 거기서 주된 요소는 기도자 자신이다. 만약 자신의 정해진 업이 발현되면, 설사 기도를 해도 부처님은 도와줄 수 없다. 또한 부처님은 세간의 모든 진리를 알지만, 세간에 이미 존재하는 상태를 바꿀 수 없다. 중생들을 교화하여 제도할 수 있지만 중생들이 제도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중생이 노력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한다. 부처님은 모든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해 우리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참된 불자가 되는 것은 삼보에 바르게 귀의하고, 귀의함으로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다.

불·법·승을 바르게 알고 귀의해야 한다. 불법佛法을 발견한 것은 부처님이고, 불법의 중심은 정법正法이며, 불교를 세간에 머무르게 하는 것은 스님들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불교에서 귀의의 중심은 부처님이었다. 부처님께서 입멸하신 뒤에 귀의의 중심은 승단이다. 삼보에 귀의하는

것은 법보를 배우기 위함이고, 법보를 배우려면 승보가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뜻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 了義經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열반경』 「사의품四依品」).”고 했다. 불교의 뛰어난 삼보에 있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삼보를 믿는 것이다. 불보를 숭배하는 것은 법보 때문이고, 법보를 믿고 받아들이기 위해 승보를 숭배한다.

귀의의 중심인 승보는 정법을 지녀야 한다. 청정수행을 통해 자질을 확립하고 정법을 바르게 체득하고 펴야 한다. 또한 귀의한 불자라면 반드시 선업을 행하고 악업은 행하지 말아야 한다. 귀의는 삶에서의 구체적인 실천과 변화를 의미한다.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이 그 마음이 청정하지 않으면 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더 키우는 것과 같아 업을 짓는 일이 된다.

우리는 대개 살면서 스스로 큰 업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사람을 죽이거나 거짓 말하는 것으로만 업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세속팔풍\*에 물든 번뇌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업을 짓는 것이다. 업은 삶을 결정한다. 현재의 삶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정해지고, 미래는 현재의 업을 통해 만들어진다. 따라서 부처님의 정법正法은 작게는 나쁜 일은 하지 않음으로써 나아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등의 행위를 통해 우리는 업력을, 운명을 변화시키라고 가르치고 있다.

### 귀의에서 발원으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그 속에서 물이 흐르고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본래 우리의 힘을 믿고, 삼보에 의지하여,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나로 태어나고자 노력하는 것,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행복도 또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다는 것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곧 귀의이다. 삼귀의로 시작한 불교의식은 사홍서원으로 마무리된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깊은 물에 큰 배가 뜨듯 서원이 커야 결실도 크다. 그리고 낙숫물이 바위를 뚫는 것처럼 작은 실천이 모여서 견고함을 이루게 된다. 넓은 바다를 향해하며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처럼 나는 왜 귀의했으며, 귀의의 대상은 누구이며, 귀의하여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었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노를 짓지 않으면 목적지에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

\* 팔풍이란 여덟 가지 좋고 나쁜 경계를 말한다. 나를 이롭게 하는 것(利)과 늑거나 병드는 등 손해가 가게 하는 것(衰), 나를 할뜯고 비방하는 것(毀)와 나를 기리고 받드는 것(譽), 나를 칭찬하고 추켜세우는 것(稱)과 나를 나무라고 꾸짖으며 비난하는 것(譏),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것(苦)과 나를 편하고 즐겁게 하는 것(樂)이 그것이다.

## 운문소식



▲ 40회 오백전기도입제



▲ 퇴염반 성지순례신중기도



▲ 47차 총동문회개회



▲ 2018승가법고대회



▲ 조사전다례제

- 9월 12일 가을철 개학공사가 있었습니다.
- 9월 16일 제40회 오백전 기도 입제식이 있었고, 입제식 후 대웅보전에서 운문사 신도회 1주년 법회와 주지스님 법문이 있었습니다.
- 9월 19일 제2회 조계종 학인연불시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운문사에서 단체전에 4팀, 개인전에 6명이 참가하여 전통부문 단체전 대상, 개인전 최우수상 등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9월 24일 추석맞이 차례가 대웅보전에서 있었고, 추석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 9월 26일 ~28일 화엄반스님들이 비로전에서 성지순례 무사회향을 지원하는 신중기도를 3일간 올렸습니다.
- 9월 28일 가을철 차례법문이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9월 29일 치문반 첫 논강이 있었습니다. 학장스님을 비롯한 교수스님들과 각 반의 대중이 청풍료에 모여 논강의 의미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10월 4일 제47회 운문승가대학 동문회가 있었습니다. 22회 선배님들이 회장단이 되었고, 9회 명신 스님, 21회 지홍 스님, 23회 일지스님이 자랑스런 운문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 10월 8일 동화사에서 송시가 있었습니다. 사집반스님들이 '반야바라 열불'을 시연하였고 법고대회에는 사집반스님 5명이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사교반스님들은 월정사 산사음악회에서 장엄염불을 시연하였습니다.
- 10월 10일 '우리말 가을철' 자자가 있었습니다.
- 10월 12일 ~14일 2박 3일간 화엄반스님들이 학장스님 인솔하에 진판사 국행수 료재에 참석하였습니다.
- 10월 14일 범룡불자교수회 창립 30주년 기념법회에 회주스님 법문이 있었습니다.
- 10월 16일 ~30일 15박 16일간 원법 교수스님과 화엄반스님들이 인도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17일 조사전에서 다례제가 있었습니다.
- 10월 22일 ~29일 7박 8일간 가을휴장으로 치문반, 사집반스님들이 출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22일 ~27일 5박 6일간 회주스님을 모시고 어른스님과 대학원스님들이 구화산으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 10월 22일 학장스님께서 올장연구회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에서 "이부승수계제도의 정착과 의의"에 대한 논문발표를 하셨습니다.
- 10월 28일 ~11월 4일 은행나무를 개방하였습니다.
- 11월 3일 제3회 경상북도 도계음악회가 대웅전 앞마당에서 열렸습니다.
- 11월 6일 제13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가 운문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11월 16일 해국 큰스님의 동안거 결제법문이 있었습니다.
- 11월 17일 ~19일 '함께해요~ HOPE명상'이라는 주제로 경주 황룡원에서 진행된 제65차 전국어린이지도자연수회에 교무스님과 30명의 학인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11월 21일 가을철 자자 및 종강이 있었습니다.

## 도와주신 분

- 장익수 • 최정희 • 정해욱 • 윤덕자 • 하옥희 • 이복자
- 이정숙 • 김판성 • 배종욱 • 부유부동산 • 김수국

##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 종체기용從體起用하고 섭용귀체攝用歸體하는 법

세상의 모든 것은 근본이 되는 체體와 근본에서 비롯된 용用이 있습니다.

체로부터 생명을 받아 작용으로 일평생을 살고 죽음과 함께 다시 근본 체로 돌아갑니다.  
입춘을 맞아 체로부터 새 기운을 받아 사계절을 누리다가 다시 체로 돌아갑니다.

아침 마당은 안에서 밖으로 쓸어내고 오후 마당은 밖에서 안으로 쓸어들입니다.  
도량석은 처음에는 여리게 차츰 크게 해서 시작하고, 저녁 쇠는 소리를 줄여 갑니다.

아침에 치는 북은 활타活打라고 하여 소리 없음에서 큰소리로 나아가고,  
저녁에는 살타殺打라고 해서 북소리를 거의 죽여 멈춥니다.

좌체우용左體右用이므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왼쪽에  
행원을 상징하는 보현보살은 오른쪽에 계십니다.

발우를 펴에도 체인 중앙의 어른부터 시작하여,  
천수물을 거둘 때에는 용의 자리인 끝에서 중앙으로 거두어 들입니다.

부처님 집안의 모든 일은 종체기용·섭용귀체의 원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밝음이 있을 때 어둠을 생각하고 어둠에 처했을 때 밝음이 옴을 알며,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것과 또 언젠가는 다시 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작용을 했다가도 언제나 근본을 돌아보고,  
고요함 속에서도 언제나 바른 행원력을 발현시켜야 합니다.

- 우룡 큰스님 법문 중에서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존자님 기도를 통해 기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교육시스템,  
다양한 학인복지 지원의 명실공히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비구니 교육수행도량!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2019학년도 신·편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운문사승가대학 신·편입생 모집 공고



##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 보현율원 신입생 모집 공고



자 격 2019년 봄 수계자 및 비구니계 수지한 스님도 가능  
모 집 인 원 사미니과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승가대학 소정양식)  
2. 은사스님 추천서  
3. 본인 사미니증(승려증) 사본 및 은사스님 승려증 사본  
4. 증명사진(장삼, 만의 착용) 2매(3×4)  
5. 준비물 : 만의, 장삼, 사미니증(승려증), 필기도구  
모 집 기 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사전에 우편 혹은 전화, 직접 방문 접수 가능)  
전 형 방 법 시험, 면접  
예비소집일 2019년 1월 24일(음력 12월 19일) 오후 4시까지  
전 형 일 시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전 7시  
교 통 편 운문사 종무소로 문의

운문사승가대학 회주 법계 명성·학장 일진·주지 진광

모 집 대 상 비구니계를 수지한 스님  
2019년도 봄 구족계 수계 예정자 포함  
통학도 가능함  
모 집 인 원 〇〇명  
제 출 서 류 1. 입학원서(본 율원·대학원 소정양식) 2. 수행이력서  
3. 승려증 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4. 기본교육기관 졸업(예정)증명서 5. 증명사진 2매(3×4)  
모 집 기 간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당일 접수도 가능  
전 형 방 법 서류심사, 면접  
준 비 물 가사, 장삼, 승려증  
전 형 일 시 2019년 1월 25일(음력 12월 20일) 오후 2시

운문사한문불전승가대학원장 명성·보현율원 율주 명성·원감 진광

※ 신·편입생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문의(054-372-8800, 370-7100)와  
운문사 홈페이지(www.unmunsa.or.kr)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가을호·통권 제146호·2018년 11월 21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동호 / 편집위원·성경, 영산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성경(무흔無痕) / 삽화·선아 / 편집디자인·Design  
MARU(디자인 마루) (053)426-3395